

경북형 저출생 전쟁 컨트롤타워 ‘힘찬 첫발’

“비 피해 줄여
도민 지킨다”



전국 최초 저출생극복 전담 조직
국 체제 ‘저출생극복본부’ 출범
과별 전문성 높은 정책·사업 추진
李 도지사 “지역 맞춤형 정책 실현
지방정부 권한·재원 이양 필수”



왕릉과 연꽃

지난달 29일 경주시 동부사적지 인근 연밭에서 연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뉴스1

저출생과 전쟁을 진행 중인 경북도가 이달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저출생극복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 국가 (가칭)인구전략기획부 설립보다 빠른 속도로 경북이 저출생과 전쟁 전면전에 나선 것이다.

경북도는 이달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 저출생과 전쟁본부를 정식 국 체제인 저출생극복본부로 확대 출범한다.

저출생극복본부에는 저출생대응정책과, 아이돌봄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가 설치돼 기존에 흩어져 있던 인구 및 저출생 관련 업무와 기능이 한곳으로 모여져 추진된다. 컨트롤타워인 저출생대응정책과는 저출생총괄기획팀, 저출생극복사업팀, 인구정책팀, 출산장려팀 등이 배치되고 인구·저출생 정책 총괄 조정, 출산 장려에 관한 사항, 대형 프로젝트 기획, 범정부 저출생 극복 법·제도 개선, 융합 돌봄 특구 추진, 만남 주선 프로그램 기

획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경북형 24시 완전 돌봄을 책임지는 아이돌봄과는 아이돌봄정책팀, 아이돌봄사업팀, 아이보육팀이 배치되고 아이돌봄정책 계획 수립, 아이돌봄시설 및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지원, 보육지원, K-보듬(경북보듬공동체) 사업 운영 등을 추진한다.

여성·가족 진화 경북을 총괄하는 여성가족과는 여성정책팀, 양성평등팀, 가족복지팀이 배치되고 여성정책 종합 계획 수립,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교육 지원, 양성평등정책 수립, 일자리관련 의점 등 여성 일자리 확대 지원 및 여성일·생활 균형 등을 추진한다.

교육청소년과는 아동정책팀, 교육청

정책팀, 청소년팀이 배치되고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계획 수립,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늘봄학교 총괄·지원에 관한 사항 등 아동 및 교육, 청소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진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의 저출생과 전쟁이 국가 인구비상사태로 확산됐다. 이전 저출생과 전쟁 전면전으로 전

쟁하는 데 국가가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하고 필요한 조직도 지방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인구전략 기획부 만든다는 데 중앙부처에서 일률적으로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지역 특색과 현장에 맞게 지방정부가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원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대구 어르신 무임승차제 1년... 이용한 시민 99.5% 만족

정책효과성 분석, 기초자료 활용
한 달 11일 이상 이용 1.8배 ↑

대구시가 지난해 7월 1일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중교통 어르신 통합무임승차제도의 정책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이용객은 8.69%에서 13.32%로 4.63% 증가했고 한 달에 11일 이상 이용하는 어르신은 27.5%에서 48.0%로 1.8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 대중교통 어르신 통합무임승차제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어르신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공경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로 대구시는 시행 1주년을 맞아 정책을 진단하

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실시했다.

정책 효과성 분석은 교통컨설팅 전문기관에 의뢰해 설문조사와 교통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뤄졌으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조사 결과로는 주 통행목적은 일반시민의 경우 출퇴근이 35.5%로 가장 많은 반면 어르신들은 위락 및 사교가 56.5%로 가장 많았고 병원 22.0%, 쇼핑 13.5%, 생업 7.0% 순으로 나타났다.

어르신 무임카드 발급 전·후 이용 교통수단은 시내버스가 발급 전 66.5%에서 발급 후 97.5%로 31.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시철도에서 시

내버스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도시철도 이용을 위한 이동거리와 계단 이용에 따른 불편함 등의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르신의 한 달 동안 대중교통 이용 평균일수는 1-5일이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1일 이상 이용하는 어르신은 27.5%에서 48.0%로 1.8배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어르신 무임승차제에 대한 만족도는 99.5%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일반시민의 어르신 통합무임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74.5%, 선호도는 85.0%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결과로는 어르신 통합무임카드는 월 5000-

6000여건을 발급 중이며 카드당 월평균 사용건수는 18건으로 시행 초기 16건 대비 20건(2024년 5월 기준)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중교통수단별 이용 비율은 시내버스, 도시철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르신 시내버스 이용 비율(63.2%)이 일반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 비율(59.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401, 623, 618, 706번 순으로 조사됐으며 경산강영공원, 서문시장, 칠성시장 등 공원과 시장을 경유하는 노선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이용형태는 어르신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에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시민은 출퇴근 및 등하교 시 이용이 집중된 반면 어르신은 낮 시간대 이용이 많아 어르신 무임승차제도 시행에 따른 승객수는 증가했으나 차내 혼잡도는 미미한 것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시내버스 이용 시 개선이 필요한 우선 순위로는 일반시민의 44.0%는 안전운행, 어르신의 73.5%는 친절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는 이번 분석된 어르신의 대중교통 이용현황 자료들은 구·군, 연구기관 등과 공유해 대구시 대중교통 및 어르신 복지분야 정책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홍준표 시장은 “앞으로 시민들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만들기 위해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구미시 장천면 상장리-거의동 일원에 추진 중인 재해예방 사업장을 찾아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점검은 곧 도래할 여름철 호우에 대비하고 사전 재해예방 사업의 공사 진행 상황과 우기 대비 집중점검을 통해 현장 위험 요인 제거와 재피해 방지를 위해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현장 점검에는 김호섭 부시장, 백순창 도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한편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돼 2021년 5월부터 사업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 350억원(국비 175억원)이며 오는 2028년 12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하천 정비 2.7km, 교량 개개 4개소로 정비사업을 통해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시 제방 여유고와 하폭을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하천 정비로 인명 보호 26세대 70명, 건물 26동, 농경지 39ha 등을 보호할 수 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총사업비 1536억원(국비 768억원)을 투입해 21개 시·군에 총 83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우기 전 주요 공종을 마무리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위험 요인을 살피며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여름철 홍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하며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YouTube 경상투데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경주

2025 APEC 정상회의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신뢰받는 9대 문경시의의회’ 전반기 알찬 마무리

정례회 5회 등 344건 의안 처리 의원 절반인 정책지원관 5명 채용 14개 읍면동 간담회로 소통 강화 의원발의안 37→62건 등 ‘열혈’ 황재용 의장 “일하는 시의회 될 것”



‘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과 함께 시작한 제9대 문경시의의회가 어느덧 2년에 걸친 전반기 활동을 제276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제9대 문경시의의회는 지난 2022년 7월 1일 개원 이후 정례회 5회, 임시회 16회를 운영하며 344건의 의안을 처리했으며 의원발의 조례 62건, 5분 자유발언 42건, 시정에 관한 질문 47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문경시의의회는 제9대 전반기 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만큼 지난 2년 동안 문경시의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시도된 변화들이 적지 않았다.

◆ 인사권 독립과 조직개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시의회에서도 지난 2022년을 시작으로

의원 정수의 1/2인 5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해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홍보팀을 신설해 의정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SNS운영,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등 시민들에게 시의회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 참여와 소통 강화

문경시의의회는 지난해 1월 1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문경시의의회 열린 간담회’를 개최했고 같은 해 7월에는 개원 1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공감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273회 임시회 시정에 관한 보고를 생중계했으며 이번 제276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받으며 시민들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구를 마련했다.

◆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상 구현 지난 2022년 자치법규연구회, 체육정책연구회, 관광정책연구회 3개의 연구단체를 결성, 연구영역을 통해 관련 조례 제정과 정책 제안의 발판으로 삼은 것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영유아정책연구회, 자치법규연구회, 상권활성화연구회를 통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갔다.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은 제8대 전반기와 비교해 의원발의 조례는 37건에서 62건으로 5분 자유발언은 7건에서 42건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성과는 정책지원관들의 지원과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문경시의의회 의원들의 노력에 따른 결

과이다.

지난달 27일에 폐회한 제276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2023회계연도 결산, 추가경정예산,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하며 9대 전반기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전반기를 이끌었던 황재용 의장은 “지난 2년은 시민을 위한 정책 제안과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주요 시정에 대한 협력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문경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는 문경시의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1일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장단과 함께 후반기 의정활동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소통·화합으로 발전하는 봉화 만들 것”

정례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 권영준·부의장 금동윤



봉화군의회 지난달 28일 제2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제9대 후반기 의장에 권영준(사진 왼쪽) 의원을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금동윤(사진 오른쪽) 의원이 뽑혔다.

제9대 후반기 의장단은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2년간 봉화군의회를 이끌 것이다.

권영준 신임 의장은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고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층 더 발전하는 봉화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동료 의원과 협력해 군민 여러분의 기대와 믿

음을 부응할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금동윤 신임 부의장은 “제9대 봉화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감사드리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경주시의회 하반기 의장에 ‘이동협 부의장’

부의장에는 임할 행복위원장 “전반기 성과 지속해 나갈 것”



경주시의회 이동협(사진 왼쪽) 부의장과 임할(사진 오른쪽) 행정복지위원장 등이 제9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에 각각 선출됐다.

의회는 지난달 28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의장 선거에서 이동협 부의장은 재적의원 21명 중 18명의 지지를 얻어 제9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으며 부의장 선거에서는 임할 위원장이 18표를 득표해 당선됐다.

이동협 신임 의장은 “부족함이 많은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경주시의회를 대표하는 자리에 대해 크나큰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소감을 밝힌 뒤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비롯해 제9대 전반기의 성과를 이어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경주시를 만

들 수 있도록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임할 신임 부의장은 “이동협 신임 의장과 앞으로 선출될 4명의 상임위원장님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제9대 후반기 경주시의회가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3일 열리는 제283회 임시회에서는 제9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4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부위원장 선거가 실시되며 5일에는 4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선임될 예정이다.

박성진 기자wbaf12@daum.net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 국힘후보 ‘박성만 의원’ 선출

총회 참석의원 55명 중 33표 득 부의장 후보 배진석·최병준 의원



위헌 의원 총회를 열고 의장 선거를 진행한 결과 박성만 의원이 참석의원 55명 중 33표, 한창화 의원이 22표를 획득해 국민의힘 후반기 의장 후보로 확정됐다. 이어 이어진 부의장 후보로는 모두

경주가 선거구인 배진석 의원, 최병준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의장 후보인 박성만 의원은 33표에 6대 도의원에 당선되면서 경북도의회 역사상 최연소 도의원으로 7대 경북도의회 최연소 기획위원장을 맡았고 3선에 성공해 9대 의회에서선 도의회 최초로 당직 없이 무소속으로 부의장에 선출되기도 한 경북도의회 입지적인 인물이다.

경북도의회는 현재 59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각 2명을 제외한 5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국민의힘 의장 후보자로 선출되면 당선이 확실시된다.

경북도의회는 2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과 2명의 부의장을 선출하며 오는 5일에는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윤여성 기자bk01410@naver.com

9대 울릉군의의회, 제279회 정례회 폐회

울릉군의의회가 지난달 27일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본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각종 조례안 5건 등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군의의회는 지난달 18일 조례제정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인식 의원, 간사 이상식 의원)를 열고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했으며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경환 의원, 간사 한종인 의원)를 구성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의했다. 또한 군의회는 25일, 26일 이틀간 군정 전반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될 필요가 있는 총 9건의 질문을 하고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공경식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의회 동안 군민과 울릉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에 감사드리

고 무엇보다도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9대 후반기 의회도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 군민의 곁에 서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울릉군의의회는 1일 제280회 임시회를 열어 제9대 후반기 의장·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김대영 기자gst3000@naver.com

공설추모공원 조성 관련 문제·대안 제시

신순화 상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신순화 상주시의회 의원은 지난달 27일 제2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주시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문제점으로는 추모공원 조성 사업 예산의 미집행으로 인한 사각, 의회와 소통 부재, 조성 과정에 있어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사업 기간 단축과 이용객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승천원 주변을 확장하고 병성동 일대에 추모공원을 조성하기를 제안했다.

신순화 의원은 “조속한 공원 조성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2@naver.com



“저출산 극복”

경북형 새날봄

<h3>조기퇴근 돌봄</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기 단축 근무 동참(MOU) 근로자 임금 보전 각종 지원사업 우대 및 환경개선사업 시행 	<h3>학교 돌봄</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최초 교육청·도협업모델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AI 기반 돌봄 순환버스 운영 돌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h3>심야 돌봄</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봄 서비스 24시 어린이집 아픈 아이 긴급 돌봄 24시 응급치치 편의점
---	--	--

▶ 온종일 안전 돌봄 시스템 구축 ◀

저출산 극복에 경상투데이운영위원회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 지역산업유산 세계에 알린다

韓 관광컨벤션 산업의 발상지... 'K-산업유산 트레일' 관광상품화 경주 보문 육부촌-코모도호텔 1114호-관광역사공원 트레일 루트 박정희 전 대통령 스토리 녹여낸 콘텐츠로 국내외 관광객 흥미 유발

경북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는 대한민국 근대 발전을 이끌었던 경북도가 가진 산업유산들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관광모델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공사가 추진 중인 'K-산업유산 트레일'은 지난 70년대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산업유산을 관광 상품화해 경북의 자긍심 제고와 이를 활용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대한민국 관광컨벤션 산업의 발상지로 지난 1979년 PATA(아시아태평양지역관광총회) 워크숍을 개최한 보문관광단지 내 육부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보문관광단지 개장 초기에 묵었던 코모도호텔 1114호, 보문관광단지 역사를 기록한 관광역사공원까지 이어지는 트레일 루트다.

코모도호텔 1114호는 박 전 대통령의

생일을 호실 번호로 지정한 것, 방 입구와 응접실, 수행원방 등에 있는 봉황문양, 집무실 등이 모두 경북을 상징하는 인물의 스토리가 담겨 있어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여행객 모두에게 흥미롭게 여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포항 영일만 일대를 포함 제철소로 탈바꿈시킨 건설 현장이 보이는 호텔 영일대 301호와 302호가 있다.

이 또한 박 전 대통령의 전용 객실로 예전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객실과 전망대, 산책로, 호수공원 모두가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구미에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이 집무실로 사용한 호텔 금오산 555호에 제입 시절 가구, 다수의 사진, 친필 액자 등이 보존돼 있다.

이 밖에도 문경의 쌍용양회, 구미의 오운여성, 상주 잡살, 포스코 1고로기 등이 대한민국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곳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김남일 사장은 "이번 산업유산을 주제로 한 관광프로그램 개발로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고 나아가 경북 관광의 다양성을 통해 세계로 열린 관광 경북을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국제 세미나와 포럼을 통해 그 가치를 알리고 각 산업유산의 역사와 발전과정에 대한 가이드북을 제작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발전시켜 나갈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경규기자seoul1411@hanmail.net



유튜버 지역 비하 적극 대응... "고맙습니다"

영양, 임대성 도 대변인에 감사패 郡 이미지 회복·지역 홍보 돋보여

임대성 경북도 대변인이 최근 영양군의 이미지 회복과 홍보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영양군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표창은 최근 구독자 3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의 지역 비하 및 자극적 발언 논란에 적극 대응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이다.

경북도와 영양군이 협력해 기획한 콘텐츠가 지역 주민들과 전국 시청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보이스TV에 공개된 '영양 가득 힐링여행' 편은 공개 14일 만에 1만9000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함께 진행된 댓글 이벤트에는 357명이 참여했다.

박외영기자p04140@naver.com

댓글에는 "이런 멋진 곳이 있었다니 놀랐다. 힐링 그 자체~"와 "영양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지 처음 알게 됐다. 일론 가서 마음의 쉼을 얻고 싶다" 등의 반응이 있었다.

오도창 군수는 감사패를 수여하면서 "임대성 대변인의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영양군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널리 퍼졌다"며 "경북도와 협력해 앞으로도 지역 홍보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대성 도 대변인은 "영양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경북도 지역을 비하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데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숨은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외영기자p04140@naver.com

도교육청, 따뜻한 교육정책으로 다자녀 지원 확대 '온 힘'

28개 다자녀 가정과 가족 캠프 가족 간 화합·소통의 장 마련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시에 있는 더케이호텔 경주와 경주 일원에서 '2024년 다자녀 가정 가족 캠프'를 개최했다. 경북교육청은 저출생 시대 자녀 양육 부담 가중에 따른 다자녀 가구의 감소를 최소화하고 다자녀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다자녀 가정 가족 캠프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6자녀 3가족과 5자녀 9가족, 4자녀 16가족 등 도내 다자녀 가정 28가족 160여명이 참가해 다채로운 프로그램 참여로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 가족이 화합하는 시간을 보냈다.

첫째 날에는 가수 박지현의 다자녀 특강과 가족 미술공연, 가족 화합 레크리에이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90년대 복고풍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족 간에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은 경주 불국사 탐방과 추억의 달동네에서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활동으로 부모 세대에게는 어린 시절 향수를 선사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역사를 공부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캠프는 초저출생 시대에 다자녀 가정에 가족의 화합과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자녀 지원 정책 확대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따뜻한 경북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외영기자p04140@naver.com



경북소방본부, 공무원 승진·전보인사 단행

소방장 2명·소방령 20명 승진 업무 전문성·정책 수행력 반영

경북소방본부는 이달 1일 자로 소방장·소방령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풍부한 현장경험, 조직 관리 능력과 다양한 임용 경로, 업무능력 등이 고려됐다.

먼저 소방령에서 소방장으로 승진 인사를 단행해 송영환 119산불특수대응단 운영지원팀장을 이번에 신설된 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으로, 장해동 성주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을 119산불특수대응단장으로 신규 임명했다.

또한 △김인식 성주소방서장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으로 △배종혁 문경소방서장이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으로 △김병각 119산불특수대응단장이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으로 △오범식 영덕소방서장이 영전소방서장으로

△김진욱 의성소방서장이 상주소방서장으로 △민병관 칠곡소방서장이 문경소방서장으로 △박영규 영천소방서장이 의성소방서장으로 △박치민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이 영덕소방서장으로 △김두형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이 성주소방서장으로 △최원익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이 칠곡소방서장으로 △백승욱 상주소방서장이 119특수대응단장으로 각각 자리를 이동한다.

한편 소방령 강석문 외 19명을 소방본부 팀장 및 소방서 과장으로 승진 발표했다.

이 밖에도 소방본부 팀장 및 소방서 과장급 29명을 전보 배치한다.

박근오 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현장경험, 업무능력 등에 중점을 둔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으로 소방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박외영기자p04140@naver.com

여름휴가 즐기고 짝도 찾고... 경북 '솔로마을' 입주자 모집

27~31일 4박 5일 체류형 캠프 매칭 커플에 크루즈 여행 제공

경북도는 결혼 적령기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인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 4박 5일간 예천과 울릉도에서 체류형 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경북도가 발표한 저출생과 전쟁 필승 100대 실행 과제에 포함돼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솔로마을에서 매칭된 커플에게는 도내 주요 관광명소를 다녀오는 1일 '행복 만남' 여행을 비롯해 연말에는 영일만항 국제크루즈 터미널을 이용한 5박 6일짜리 '크루즈' 해양관광 기회도 제공한다.

경북도는 솔로마을 사업을 경북청춘 공감기획과 함께 하계휴가철과 크리스마스 시즌에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 여름휴가철 입주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주 동안 참가 신청을 받는다.

참가 대상은 경북도에 거주하거나

도 소재 직장에 다니는 25세~42세(1982년~1999년생) 미혼남녀로 △주인 등록상 주소지 △도내 직장인 △참가자 연령 등 자격조건 구비자 중 심사 및 추첨을 통해 총 24명의 최종 참가자를 선정한다.

최종 참가자는 오는 17일 개별 통보할 예정으로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www.g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여름 솔로마을은 오는 27일 예천 금당실 마을에서 연애·결혼에 필요

한 패션, 화술, 심리 등 개인별 매칭 역량 강화 컨설팅을 시작으로 28일 포항에서 크루즈를 이용해 울릉도로 이동한 다음 스노클링, 해안도로 투어 데이트 등 일정을 진행하고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최종 커플을 매칭하는 이벤트로 마무리한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경북도가 아침 차게 준비한 솔로마을 입주자 모집에 진지한 만남을 원하는 많은 분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여름휴가철에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쉼을 찾고 자연스러운 만남이 시작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박외영기자p04140@naver.com

제26회 봉화은어축제

2024. 7. 27. SAT - 8. 4. SUN 9일간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천 일원

주최/주관 봉화축제관광재단
후원 경상북도 봉화군

“호우 상황별 적극 조치로 인명피해 최소화”

오토바이 과속·신호위반 ‘꼼짝마’

김학홍 행정부지사, 긴급 회의 협업부서들과 재난 예방 논의 재대본 ‘비상 1단계’ 체계 가동

경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지난달 29일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집중 호우 대비 긴급 재난안전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경북도는 지난달 29-30일 경북 전역에 30-80mm, 특히 북부내륙·북동산지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29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초기대응 근무를 했다.

이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3개 시·군(상주, 문경, 예천)에 호우주의보(오후 7시)가 발효되면서 오후 6시부터 비상 1단계 체계를 가동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이번 호우의 기상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진행될 호우에 따른 재난 발생 방향 예측과 진행 단계별 대처 방안, 관계기관 협력 및 재난 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필요한 사항, 17개 협업부서 소관별 조치·분석 내용과 피해 발생 여부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김 행정부지사는 “특히 도내 지난해 산사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부지사에게 직접 보고, 위험 예보 시 마을순찰대를 적극 가동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호우에 따른 비상근무 시 중점 관리 대상(5개)에 일 강우·누적 강우를 확인하고 CCTV 모니터링, 위험지역 순찰활동을 통해 대피 필요성

을 판단하는 등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역을 특별 중점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번 호우에 따른 위험이 예측되는 12개 시·군 525개 마을 1002명의 마을순찰대를 가동해 재해취약지구를 사전 점검하고 취약계층 안전을 확인하는 등 도민의 인명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사태 위험지역 6세대 10

명을 사전대피시켜 산사태 위험에서 인명피해 발생 전 적극 조치했으며 도내 시설물에 대한 사전통제 9개소를 실시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시 기능별별 직접 상황을 파악하고 극한 호우에 상황별로 적극 대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박외경 기자p04140@naver.com

도경찰청, 후면 단속카메라 운영
경북도경찰청은 과속, 신호위반 등 이륜차 번호판 특성상 단속이 어려운 불법위반에 대해 시범운영 기간을 포함 올해 1월 1일부터 후면 무인단속 실시를 하고 있다.

일반 차량과 더불어 이륜차까지 단속이 가능한 후면 단속카메라는 경북도내 5개소(포항북부 대련삼거리, 포항남부 호차사거리, 대잠사거리, 구미시 선산시외버스터미널, 경산시 경산사거리)에서 운영 중이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기존에 차량 앞부분만 인식하던 단속카메라와 달리 후면 번호판을 인식한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이륜차의 안전모 착용 여부도 인식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단속이 어려웠던 이

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단속과 더불어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이 가능하다.

또한 후면 단속카메라는 차량의 교차로 진입 전이 아닌 진입한 후 후면 번호판을 찍기 때문에 그동안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던 일부 ‘갱겨루 운전자’에 대한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경북경찰청은 운영일로부터 현재까지 5대의 후면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 6821건(이륜차 734건), 신호위반 1567건(이륜차 371건), 안전모 미착용 430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 피서철이 다가옴에 따라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며 “교통법규 준수를 통한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후면 단속카메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외경 기자p04140@naver.com

경북경찰,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밤낮 안 가린다

8월 말까지 매주 3회 이상 실시 과속·신호위반 등 병행해 단속

경북도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

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단속을 포함해 주 3회 이상 주야간 구분 없이 교통경찰 및 가용경찰을 최대한 동원해 ‘스팟식 단속’과 ‘지그재그식 단속’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단속 장소는 평상시 실시해 오

던 어린이보호구역 및 유흥가, 식당가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휴가철 특성을 고려해 해수욕장과 산간계곡 등 피서지 주변, 고속도로 전·출입로 등에서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안전한 피서지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주요 사고 요인행위인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과속, 신호위반 등 주

요 사고요인행위도 병행해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이다. 휴가철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되므로 도내 피서지 및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음주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외경 기자p04140@naver.com

“영천 이웃 위한 복지자원 찾기 집중”

동부동 지보험, 따숨꾸러미 전달

영천시 동부동은 지난달 27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결식우려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중장년 1인 고독사 우려 가구 등 취약계층 10가구를 대상으로 동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6월 따숨꾸러미 사업을 진행했다.

동부동 따숨가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적극적인 복지자원 발굴에 힘입어 사업 시행 초기 19개소에서 현재(6월 기준) 34개소로 확대됐으며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45가구

에 따숨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협의체 위원들은 각각 2-3곳의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빵, 불고기, 햄버거, 치킨, 과일, 반찬식품, 생필품 등 다양하게 구성된 꾸러미를 전달하고 여름철 어르신들의 생활실태와 고충을 파악하는 등 안부도 살폈다.

김동희 민간위원장은 “어르신 취약계층에게는 더 힘들고 어려운 계절이다.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자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운동촌 동장은 “해마다 여름 기온이 높아지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이웃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 속

에서 지속 가능한 나눔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석열 기자jsy9220@hanmail.net

울릉, 시니어의 안전 소비활동 지원 ‘앞장’

노인소비자 피해 예방교육 진행

울릉군은 지난달 25일 울릉군 노인복지관에서 소비자 정보 및 합리적인 선택 능력 부족 등으로 약덕 상술 노출에서 피해를 입기 쉬운 노인소비자의 소비생활 안전과 해결 능력 함양을 위해 ‘노인소비자 피해 예방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교육에서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지역경제연구소와 연계해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 25명을 대상으로 1부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 2부 ‘ATM기 사용 교육’, 3부 ‘금융사기 예방 교육’ 등을 실시했다.

울릉군 노인복지관은 이번달 시니어들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스마트폰을 바탕으로 금융예방교실을 집중해 운영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금융교육은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졌는데 젊은 대학생 강사님들이 재미있는 율동과 트로트를 개사한 금융예방 노래로 금융상식과 정보를 잘 전달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남한권 군수는 “앞으로도 울릉군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0604-중-326호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한방으로 치료한다

장정불로단(壯精不老丹), 하루 2번 간편복용으로 중년 남성의 고민 해결

고개 숙인 중년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조루·발기부전·전립선 질환·만성피로 등 여러 가지 남성 질환을 위한 한방 치료법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화제다.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강남행복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장정불로단이 바로 그것.

장정불로단은 <만병회춘> 고전에 나온 연령고본단(延齡固本丹) 처방을 가감하여 산수유, 구기자, 맥문동, 천문동, 복분자, 파고지, 숙지황 등 20여 가지의 약재로 처방한 약이다. 이 약은 중년 이후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소모된 정기신혈 진액의 원천을 보충해 준다.

이 원장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운동 부족, 흡연과 음주 등으로 중년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로와 권태를 호소하며, 성적 자신감까지 잃은 남성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도의 정신활동으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를 겪고 있는 전문직 남성들에게도 입소문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소모된 기혈진액을 보충,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세포의 생리 활성이 떨어지면서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기능이 약해진다. 이에 따라 신체조직과 장기의 전반적인 신진대사기능이 저하되고, 피부와 모발 및 근육은 건조해지며, 뼈도 성글어진다.

혈진액을 보충해줌으로써 세포와 조직에 생기를 불어 넣고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다. 장정불로단을 복용 후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만성피로와 성욕감퇴의 경우 몸이 가벼워지고 의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발기부전 또한 개선된 사례가 많다. 특히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현대 남성들의 경우,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만성피로, 발기부전, 조루, 성욕감퇴, 노화 등에 효과적
한마디로 장정불로단은 우리 몸 전체에 생기와 원기를 불어넣는 한방 보양제라고 할 수 있다. 만성피로에 지친 남성, 발기 부전이나 조루, 정력 부족을 호소하는 남성에게 효과가 있

으며, 흰머리, 잔주름, 피부 탄력 저하, 성욕 감퇴 등의 노화 현상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중풍 후유증의 병후 관리나 정맥 부족 등으로 인한 남성 불임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잘 낫지 않는 전립선 질환의 경우 이수비노탕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정불로단은 일반 탕약이 아닌 환약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2번 복용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체질과 나이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은 한방치료법이기에 때문에 중년 남성들에게 큰 효능을 얻고 있다.

강남행복한의원 ☎ 02-512-6510
www.kangnamh.co.kr

부자농촌 경주, 귀농·귀촌 최적지 '전국 1등'

귀농귀촌 정책부문 2연속 대상 웰컴팍교육지원센터 조성 등 주거·영농 정착 초기 지원 '호평'

'젊은이가 돌아오는 부자 농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귀농·귀촌인 맞춤형 정착 지원 등 행정을 펼친 경주시가 귀농·귀촌 최적지로 인정받았다.

경주시는 지난달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24년 국가서비스대상'에서 공공행정 서비스 귀농귀촌 정책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경주시는 '젊은이가 돌아오는 부자 농어촌'을 목표로 귀농·귀촌인 지원사업과 웰컴팍교육지원센터 조성 등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귀농·귀촌인 맞춤형 정착 지원 사업으로는 이사비용 및 주택수리비 지원, 임시거주지 임차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영농기반 정착을 위해서는 소형농기계 구입 및 농지 임차료 지원, 영농자재 구입 및 귀농인 우수 유치마을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역 우수농업인 또는 성공 귀농인인 선도농가가 이주한 귀농인의 초기 영농 실패의 부담을 줄이고자 귀농인 농장을 방문해 영농 기술과 시설관리법 등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업 초기 관심 있는 분야 작목 재배 기술 습득, 정착과정 상담 등 현장실습 교육에 5개월간 참여한 연수생에게는

최대 월 80만원, 선도농가에게는 최대 월 4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경주농업대학에서는 지난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귀농·귀촌 과정뿐만 아니라 치유농업, 사과 과정을 주 1회(3~4시간) 운영한다. 귀농·귀촌 가구수가 지역민들과 식사, 다과 제공 등의 화합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135만원 한도 내 환영행사 비용을 지원한다.

주낙영 시장은 "편리한 교통과 우수한 영농 환경,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주가 최근 귀농·귀촌 최적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 웰컴팍교육지원센터 조성으로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핵심적인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APEC 성공 개최 위해 최선 다할 것"

송호준 경주 신임 부시장 취임 다분야 '행정전문가'로 손꼽혀



자치행정과장을 역임했다. 특히 송 부시장은 경북도립대학 행정사무국장 직무대리, 국방대학교 파견 근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행정전문가로 꼽힌다.

송호준(사진·57) 前 영주 부시장이 경주시 신임 부시장으로 취임한다.

송 신임 부시장은 이달 1일 주낙영 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나선다.

영천시가 고향인 송 신임 부시장은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1989년 7월 18일 임용과 함께 영천시청에서 9급 공채로 공직생활의 첫발을 디뎠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송 부시장은 경북도 기획조정실, 관광진흥과, 인재개발정책관, 관광마케팅과장,

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행정전문가로 꼽힌다.

송호준 신임 경주 부시장은 "경주시 1800여 공직자들과 함께 25만 경주시민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겠다"며 "특히 내년 경주에서 개최될 2025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경주가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경주교육청, 학교 소멸 위기 해결방안 모색 '힘'

경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7일과 28일 1박 2일간 목포교육지원청 및 목포마을학교 일대에서 영호남 교육 교류를 실시했다.

'영호남 상생협력에서 미래교육을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실시한 이번 행사에는 권대훈 교육장 외 40여명의 직원이 참석해 직급별로 모여 교육 정

보를 교환했다.

또한 이번 교류를 통해 경주 지역유산을 활용한 교육콘텐츠 개발, 수업활용 경험담 공유 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구안하는 등 지역과 학교가 소멸해 가는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강구했다.

이러 목포 원도심에 위치한 '하당 행복 마을학교'를 방문해 운영 방식, 내용,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다.

목포는 문화, 예술, 자유허가계, 진로교육, 학생자치활동 등 학교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경주의 마을학교 운영 활성화에 좋은 본보기가 됐다.

권대훈 교육장은 "최근 글로벌미래교육박람회를 통해 영호남 교육 교류 및 발전에 희망을 보았다. 세계로 나아가는 경주교육을 위해 지속적 교육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향후 학교 관리자, 교사,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중심으로 교육 교류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서경규기자seoul1411@hanmail.net

목포교육청과 교육 교류 정보 교환·우수 사례 공유



시,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에 84명 배치

지역공동체 58명·공공근로 26명 각 11·18개 사업 투입... 10월까지

경주시는 1일부터 4개월간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 읍·면·동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8명,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26명 등 총 84명의 일자리 참여자를 투입한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는 △남천변 산책로 꽃길 조성사업 6명 △화랑마을 여름식당 및 환경정비 6명 등 11개 사업에 배치된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환경봉사 자원봉사관 환경정비 등 환경정화 18명 △소상공인 특별보증 업무지원 등 행정업무 보조 6명 △경주역 대중교통 안 내도우미 2명 등 18개 사업에 투입된다.

참여자들은 연령에 따라 1일 5시간 또는 6시간씩 근무한다. 급여는 시간당 9860원의 임금과 주휴·연차수당 및 간식비(1일 5000원)가 지급된다.

시는 앞서 지난 5월 각 읍·면·동에서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신청을 접수 받고 각 가구의 소득, 재산상황 및 참여희망 등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하반기 참여자를 선발했다.

한편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에는 총 28개 사업에 88명을 배치했다.

특히 올 상반기 첫 시행한 경주역 대중교통 안내도우미는 지역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긍정적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주낙영 시장은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시민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경규기자seoul1411@hanmail.net

정서적 어려움 겪는 시민에 심리상담 나서

오늘부터 행복센터서 신청 접수 8회 이용, 상담기관 지역 제한 無

경주시는 1일부터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함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등이다.

다만 약물·알코올중독, 중증 정신질환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기준 중위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0원~2만4000원)을 납부하고 총 8회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상담기관은 전국 어디든 선택 가능하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인정 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또는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경규기자seoul1411@hanmail.net

전기차 충전구역 내 방해 행위 '집중단속'

위법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경주시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1195기, 급속 충전시설 285기가 설치·운영 중이며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충전 방해 행위 신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 방해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시설 주변에 짐을 쌓아 전기차의 진입과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이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전기차의 경우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 경과, 완속충전구역에 14시간이 경과된 후에 계속 주차한 경우도 단속 대상에 된다.

시는 지난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민원 1230건 중 55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 상반기 673건 민원 중 28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주시는 시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함과 동시에 위반행위가 빈번한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구역 등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경규기자seoul1411@hanmail.net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축하드립니다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구 경북 종합 일간지

경상투데이

운영위원회

민선8기 출범 2주년... 대구시민 10명 중 6명 “살림 잘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시민 1063명에 전화·온라인 활용 1주년 조사대비 긍정비율 3.8%↑ 수변·여가공간 조성 선호도 높아 무임승차제·마트 평일휴무 등 시민 체감형 정책 추진 ‘큰 호응’

대구시는 민선8기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지난달 12일부터 18일까지 18세 이상 대구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인 60.6%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번 조사는 대구미래 50년을 위해 폭넓은 시민 의견을 파악해 전략적인 정책 추진을 하기 위함이며 주요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정운영 전반은 지난해 민선8기 1주년 조사때 보다 긍정비율이 3.8%나 높은 60.6%이며 최근 4회에 걸친 여론조사에서 긍정비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반면 부정비율은 지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율이 상승한 원인으로서는 지난

민선7기 시절 총 6차례 여론조사에서 시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평균 42.3%에 그쳤으나 대구혁신 100+의 틀을 완성해 대구시가 질적으로 확실히 달라진 점에서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민선8기 핵심정책에 대한 선호도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같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혁신적 정책을 가장 선호했다.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은 지난해 7월 도입돼 버스·도시철도 전부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으로 전국적으로 정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대구시의 강한 추진력으로 특·광역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것은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 타파와 대구시민의 쇼핑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그리고 신천수변 공원화 사업과 대구대공원 착공 등 획기적인 시민 여가공간 조성에도 선호도가 매우 높았다.

신천은 올해 말까지 신천 도심구간에 5000주의 나무를 더 식재해 시민이 머물고 싶은 푸른숲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아울러 오는 2026년 대봉교 인근

에 프리포즈를 테마로 한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서게 되면 신천은 전국적으로 핫한 명품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또한 판타지아 대구페스타, K-트롯 페스티벌, 대구마라톤 등 시민들에게 행복감과 즐거움을 주는 문화분야 역시 선호했다.

지난 5월 개최된 판타지아 대구페스타는 한방문화축제, 파워풀 대구페스티벌, 동성로 축제 등 봄·가을 축제를 대통합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지난해 대비 역외관람객 비중이 22.6%, 축제연계 관광 비율이 22.5% 증가했으며 만족도 또한 71.7점에서 78.1점으로 상승했다.

대구마라톤은 지난 4월 개최돼 역대 최대 인원인 2만8000여명이 이번 대회를 즐겼으며 이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급, 세계육상연맹 국제공인코스, 역대급 참가인원 등 명실상부 세계 최고 대회로 격상됐으며 내년 대회는 참가자들의 컨디션, 날씨 등을 고려해 오는 2025년 2월 23일 추진할 계획이다.

민선8기 핵심정책 선호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정책들은 대부분 시민중심 체험형 정책이며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는 현장에서 시민들은 많은 지지와 뜨거운 호응을 보내왔다.

한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5대 미래 신산업 육성, 도심 군부대 통합이전 등 장기간 소요되는 대형사업들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았으나 본격 착공되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 시민들의 선호도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은 전국 최초로 민·군 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 헌정 사상 첫 기부대양어 특별법이 제정됐으며 12월에는 대구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공공·금융기관 업무협약을 하반기는 사업성 보강 등을 위해 특별법 일부 개정과 SPC설립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도심 속 군부대도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현재 군위, 영천, 상주, 칠곡, 의성에서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향후 이전지 선정, 설계·공사 등 관련 절차를 원활히 마무리해 오는 2030년까지 국군부대 4개소(5개 부대)를 이전시켜 전국 최초 밀리터리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셋째 앞으로 바라는 미래정책에 대해서는 미래 신산업 육성 및 대규모 투자유치, TK신공항 건설이 대구미래

최우선 과제로 선정됐으며 이 같은 중장기 정책사업은 직접적인 성과를 당장 체감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경제회복에 대한 열망이 크게 반영돼 최우선 순위로 꼽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제회복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구시는 민선8기에 들어 활력을 잃어가던 대구산업을 ABB(AI, 블록체인, 빅데이터)·반도체·로봇·UAM·헬스케어를 5대 주력 산업으로 재편하는 산업혁신을 단행했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원스톱 기업지원으로 출범 2년 만에 지난 10년간 유지 총액의 2배에 달하는 8조5532억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 향후 대구시는 올해 지난달 기회발 전특구로 지정된 ‘수성알파시티’, ‘대구국가산단’, ‘금호워터폴리스’ 등 지구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으로 미래신산업 활성화 및 대규모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미래 50년 먹거리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앞으로 바라는 미래정책 3위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선정됐는데 이것은 대구시·경북도가 오는 2026년 7월 통합을 목표로 모든 시정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시민

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엿볼 수 있다.

지난 5월 17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통합에 합의 후 불과 한 달 뒤인 6월 17일에 시는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전격 신설해 특별법안 마련, 균형발전 전략수립, 경제·산업 분야별 특례 발굴 등 통합에 필요한 면밀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구혁신 100+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 한반도 제2의 도시로서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 양대 경제 중심축으로 새롭게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2년간 오로지 250만 대구시민만 바라보며 대구혁신 100+를 통해 대구굴기의 핵심틀을 마침내 완성했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들께서 더 큰 대구와 미래 50년 변화를 위한 담대한 도전에 굳건한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대구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한 18세 이상 대구시민 106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온라인을 통해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더 다채로워진 신천 사계절 ‘사색(四色) 정원’ 눈에 띄네

네 가지 테마로 다양한 꽃 식재 미래 세대·기후 변화까지 고려 탄소저감·폭염완화 효과 ‘기대’

대구시는 대봉교 200m 하류 신천 좌안 둔치에 사계절 네 가지 색으로 피어나는 사색(四色) 정원 조성을 완료했다. 이번엔 조성한 신천 사계절 사색정원은 면적 2780㎡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4가지 색 △노랑(yellow) △빨강(red) △보라(purple) △흰색(white)으로 표현한 4개의 테마가 있는 정원이다.

또한 목서, 배롱나무 등 목본류 71종 591본과 수국, 수크령 등 초본류 72종 1만5516본을 4가지 색깔별 정원에 다르게 심어 사계절 다양한 색으로 꽃이 피



조성 전



조성 후

고 지는 특색 있는 정원을 만들었다.

한편 정원 곳곳에 색감 있는 담장과 의자를 설치한 쉼터, 능소화가 심어진 트릴리스, 정원을 표현한 다양한 소품들이 있어 신천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형제 환경수자원국장은 “탄소저감, 폭염완화 등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기 위한 시민 생활권역에 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다”라며 “신천을 거닐다 이곳 사계절 사색 정원에 잠시 머물러 마음을 추스르고 위안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정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한편 앞으로 바라는 미래정책에 대해서는 미래 신산업 육성 및 대규모 투자유치, TK신공항 건설이 대구미래

최우선 과제로 선정됐으며 이 같은 중장기 정책사업은 직접적인 성과를 당장 체감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경제회복에 대한 열망이 크게 반영돼 최우선 순위로 꼽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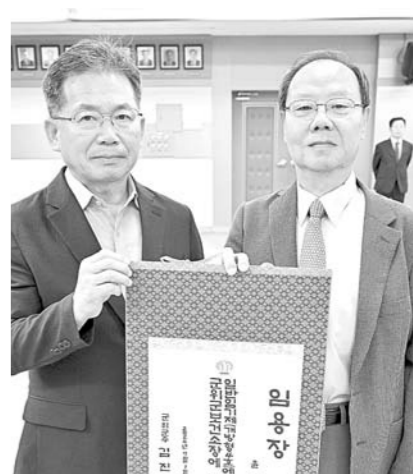
6개월 공백 끝... 운영국 군위보건소장 임용 경북대 의대 전 교수로 군 최초 의사 소장 ‘지역에 보탬 되교파’

군위군이 드디어 6개월간의 보건소장 공백을 해결하고 군 최초로 의사 보건소장을 이달 1일자로 임용했다.

새로운 보건소장으로 취임한 인물은 운영국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전 교수로 20여년 전 우연한 기회로 군위군에 귀촌해 지역민들과 따뜻한 인연을 쌓아오고 있다.

윤 소장은 지난 1981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외과교수로 발령받아 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인이자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으로서 흔들림 없는 외길 인생을 걸어왔다. 그는 30년 이상 대학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외과과장, 주임교수, 응급의학과 과장, 대구경북 권역별 응급센터장 등을 역임, 지난 2013년 정년퇴임 후 창원에 위치한 종합병원인 한마음병원 병원장으로 초빙돼 2년간 재직한 바 있다. 이후에도 그는 대구시에 있는 시지노인전문병원에서 외과 과장으로 9년간 재직 후 올해 2월 말 퇴임했다.

그는 “20년째 주말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제2의 고향과 같은 군위군에서 그



동안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건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기댈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윤 소장 취임으로 6개월간의 보건소장 공백기를 극복한 군위군은 앞으로 주민 수요에 맞춘 체감도 높은 보건 의료 체계를 확립해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성수기자power5151@naver.com

세계가 찾는 ‘대구의료원’ 베트남 의료진 벤치마킹 위해 내방 지역 선진 의료 체험과 노하우 공유

베트남 흥옥폭풍중합병원 의료진 및 경영진 8명이 선진 의료 체험과 보건 의료분야 벤치마킹을 위해 대구의료원을 방문했다.

이날 두 기관은 병원 운영과 의료시

스템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양국 간 현지 교민들의 의료서비스 지원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시오 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 기관 간 교류를 활발히 하고 앞으로도

질 높은 의료 서비스와 다양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로 많은 병원들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살국유사의
눈교장 군위

대구광역시 군위군

파워풀 대구와 함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춘양공용버스터미널, 18개월 만에 군민 곁으로

**봉화새마을금고가 매입·재개장
군수·주민 300여명 개장식 참석
춘양장·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봉화군 춘양면민들의 염원사업이던 춘양공용버스터미널이 문을 닫은 지 1년 6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됐다. 지난달 27일 열린 춘양공용버스터미널 개장식에는 박현국 군수를 비롯해 김상희 경찰서장, 박창욱 도의원, 금주현 경찰서장, 김장수 소장서장, 권의원, 이태봉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주민 300여명이 참석해 1일 자로 운영되는 터미널 개장을 축하했다. 지난 2022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춘양공용버스터미널은 경영악화로 인

해 잠정 폐쇄됐고 이후 군은 인근 춘양면사무소 입구에 임시버스터정류장을 만들고 춘양면 주민들을 위해 명맥만 유지해왔다. 지난해 초 봉화새마을금고에서 춘양공용터미널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같은해 5월 공사를 완료, 봉화군 새마을금고 춘양지점이 입점한 뒤 버스매표소 시설을 갖추고 오늘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이태봉 이사장은 “지난해 초 이곳 버스터미널이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영업을 포기한다고 들었을 때 우리 금고가 어려운 결단을 했다. 이 자리에 계신 이사님들께서 흔쾌히 승낙하셨고 지난 2월 총회에서 만장일치 승인으로 부지를 매입하게 됐다”면서 “박현국 군수를 비롯한 지역구 권영준·김민호·황

문의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오늘 이렇게 개장식을 갖게 됐다. 춘양권 주민들의 염원 사업을 새마을금고가 해냈다. 지역민과 새마을금고가 같이 상생하고자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계기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그 옛날 명성 높던 춘양장이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역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지만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다고 본다. 새마을금고는 단순한 돈 장사는 아니다.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새마을금고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박현국 군수는 축사를 통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가운데 오늘 춘양 공용버스 터미널을 개장하고 춘양 새마을금고 지점을 개소하

게 해준 이태봉 봉화새마을금고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지난 1년 6개월 동안 버스를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한 점을 감내해 준 면민들 덕에 오늘 이렇게 산뜻한 모습으로 새로이 공용버스터정류장이 제자리를 찾게 됐다”고 축하했다. 이어 “지난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무료화로 봉화 버스 이용객들도 많이 늘어났다. 춘양공용버스터정류소가 꼭 교통시설로만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관광객과 이 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승객 여러분 그리고 우리 봉화 주민 여러분의 심터나 휴식처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봉화군도 이 공용버스 정류장이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안동 용기종기 온천장, 남녀노소 ‘큰 호응’

**7가지 마당 구성으로 취향저격
독도사진전 등 문화교류 역할 톡톡**

안동시 북후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구 온천역 부지 및 북후면 주민자치센터 일원에서 ‘2024 용기종기 온천장 첫 번째 장날’ 행사를 진행했다. 온천장은 430여년의 역사가 깃든 안동의 옛 장터로서 장날엔 사람이 붐비고 문화교류의 장이 열리는 등 80년대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5일장의 역할을 했으나 급격한 인구감소와 대형 할인점의 확대 등으로 규모가 점점 축소됐다. 이에 지난 2018년부터 마을의 아이들과 함께 하는 어린이 문화장터를 열면서 쇠퇴한 온천장을 문화·놀이 장터로 발전시켰고 지역 시민을 초대하는 등 해마다 꾸준히 장을 열어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확대했다. 올해 안동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선정된 ‘용기종기 온천장’은 아이

들과 마을 어르신이 함께 장터에 참여하고 주민이 직접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위원회는 총 일곱 가지 마당을 구성했으며 판매마당에서는 농산물과 가공품, 공예품, 중고물품 등을 판매하고 먹거리마당에서는 온천순만두, 안동식혜, 나물전, 국수, 아이들 분식코너, 온천 막걸리, 마요거트 등을 판매했다. 이 외에도 미꾸라지 잡기와 반려동물 먹이주기가 진행되는 체험마당과 독도사진전을 무료로 전시하는 전시마당, 초청가수 공연과 북후면 풍물단의 품바 공연이 진행되는 공연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큰 호응을 얻었다. 최진수 위원장은 “면 단위에서 모든 세대의 주민이 함께 문화의 장을 열어 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한 대표적인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명수 기자oms727@nate.com

사계절 한가득 ‘청송솔빛정원’ 놀러오세요

청송군은 우왕산관광단지 내 위치한 ‘청송솔빛정원’을 무료 개방해 운영하고 있다. ‘청송솔빛정원’은 청송을 상징하는 소나무의 선비정신 그리고 도자문화 예술 등 청송고유의 투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각 여섯가지 테마별로 이뤄져 정원의 시작과 만남의 장이 형성되는 청송마당, 도자예술과 문화프로그램이 있는 예술의 뜰, 청송의 투박함과 자연성을 담은 두메누리원, 청송의 너털돌 등 자연소재와 다양한 수목이 어울리는 향설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청송의 선비정신을 표현하는 꽃마루원, 선비의

사색과 풍류를 상징하는 오월원으로 각 색의 조화로운 초화류들로 이뤄져 4계절 특성을 살리고 있다. 특히 온실 내 500여종의 선인장을 식재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누구나 한번쯤 쉬어갈 수 있는 새로운 휴양 문화 공간으로 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윤경희 군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백일홍 단지로 유명한 ‘산소카페 청송정원’에 이어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인 ‘청송솔빛정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향후 다양한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의성군, 주민참여예산·보조금관리 담당자 전문성 높인다

**위원회 30명 대상 역량강화 교육
의견서 작성·보조금 심의 등 설명**

의성군은 지난달 26일 주민참여예산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회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및 보조금관리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높이고 위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의 심의 방법 및



절차, 주민의견서 작성, 보조금 심의 등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군의 주민참여 예산은 이달부터 주민제안사업 접수를 받아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에 주민제안

사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시행된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시행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거쳐 삭감 여부 및 사업폐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교육으로 위원회의 역할이 한층 강화돼 공정성과 전문성이 제고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원들과 함께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예천 ‘마음챙김과 치유 아카데미’ 개최


예천군은 이달 25일 예천군 문화회관에서 제64회 예천군민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종교계의 명사인

성진 스님과 하성용 신부를 초빙해 ‘마음챙김과 치유’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연사로 나서는 성진 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성관사 주지로서 BBS TV

‘행복공양간’ 등 여러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바 있으며 하성용 신부는 서울대학교 사회사목국 부국장으로 MBC ‘일타강사’ 등에서 재치 있는 입담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날 강연은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현장에서 군민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예천군 통합교육포털(www.edu.ycg.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군청 행정지원실 평생교육팀(054-650-6198)에 전화로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준비된 땅 상주!

입지, 교통, 인프라, 탁월한 미래까지
상주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군사시설 건설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군사시설 최적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군사시설 최적지 상주!

최적의 입지와 교통

국도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국 2시간 이내의 접근성, 중부내륙철도 개통(예정)으로 더 빨라진 KTX역세권

원스톱 지원과 풍부한 인프라


이전사업 TF팀의 원스톱 지원과 교육, 의료, 관광, 문화, 일자리까지 부족함 없이 누리는 민군상생협력타운 건설

군사훈련 최적지

너른 평지와 저렴한 공시지가, 다양한 지형을 조화롭게 갖춰 전술적인 훈련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부지

결집된 유치 의지

범시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주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군사시설 이전 유치 홍보활동 전개



상주시
SANGJU CITY

구미, 시민 행복 도시 조성 위해 '행정력 집중' 성주군, 채용행사 열어 면접·취업 '한번에'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위해 추진위 출범... 포용성 강화 나서 장애인 보행·문화시설 등 개선

구미시가 살기 좋은 도시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가운데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구미시는 지난달 27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2024년 1차 추진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출범은 고령화 사회와 장애인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 설계 및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 위함이다.

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아울러 장애없는 환경 확대와 도시 기반의 개선을 통해 보행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이동권을 지원하는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5월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모든 시민,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가 도시인프라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



키 위해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원회는 김호섭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환경교통·도시건설·사회복지·문화체육관광 분야 실무진과 교수, 교통약자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돼 관련 계획 수립, 시책 개발, 제도 개선, 기존 조사자료 활용 등의 자문과 심의를 수행한다.

시는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보행 환경, 교통시설, 휴식문화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보행 이동이 많은 송정동과 형곡동을 우선 사업지로 선정해 784개소의 13개 사업을 1차 추진사업으로 진행한다. 경계구간 높이차이 제거, 연석경

사로 설치, 재질 및 마감 개선과 함께 보도의 재질 균일, 파손 또는 돌출 및 함몰, 횡단보도 위치 안내 점자블록 미설치 등을 해결한다.

이후 2차 사업은 강동지역인 인동동과 진미동에서 보행약자를 위한 필요 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총 277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다양한 무장애 도시 인프라 사업도 추진 중이며 주요 사업으로 원평동의 상생팩토리사업(90억원)과 청소년·소상공인 상생센터(129억원), 도량동의 무장애 순환산책로(11억원) 조성, 금오산과 에코랜드 일원의 열린관광지 사업(10억원) 등이다.

바우처 택시(5억5800만원)는 지난 2

월부터 시행 중이며 입산부 택시(4억 7500만원)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복합문화센터(24억원)와 낙동강체육공원 구미캠핑장 내 경북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사업(3억원)을 통해 진입교각과 무장애 카라반을 설치했다.

김장호 시장은 "보행약자를 비롯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키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추진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다양한 사업이 구미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1차 일자리 잡(JOB)는 날 '성료' 지역 중소 20곳·구직자 40명 참여

성주군은 올해 첫 채용행사인 '1차 일자리 잡(JOB)는 날'을 지난달 27일 건강문화캠퍼스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구인기업 및 구직자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성주군 취업지원센터와 경북도 경제진흥원이 손을 잡고 추진했으며 동심기업, 신생공업(주), ㈜성창기공, 명일포텍(주) 성주공장, ㈜유림테크 등 지역의 견실한 20개 업체가 참여했다.

사전 등록된 구직자 40여명이 현장 면접에 참여해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사전 등록 없이

행사장에 방문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도 현장면접과 취업상담이 이뤄졌다.

이번 채용행사는 성주군취업지원센터에서 교육훈련사업으로 양성한 1기 품질관리(QC) 수료생들이 구직을 위해 참여했으며 교육과 동시에 취업이 이뤄져 수료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행사 관계자는 "올해 일자리 잡(JOB)는 날은 기존 행사와 다르게 기업체 수요가 많은 품질관리 인력을 직접 양성해 취업·연계함으로써 기업체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 내 기업, 주민이 원하는 취업훈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인 매칭을 통해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일호 기자hoyai515@daum.net



칠곡군 희망어린이집, 환경보호 '솔선수범'

세 달간 모은 우유 팩→화장지 교환

칠곡군 희망어린이집의 원생들과 교사들이 지난달 27일 석적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원생들이 세 달간 모은 폐 우유 팩 10kg을 톨 화장지 20개로 교환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칠곡군의 'ECO 칠곡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내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희망어린이집의 원생들은 지난 몇 달 동안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사용한 우유 팩을 모으고 이를 깨끗이 씻고 말리는 과정을 통해 재활용의 기본 원칙을 배우도록 했다.

한편 석적읍 행정복지센터는 유용폐자원 재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폐건전지 10개당 새 건전지 1개를, 폐 우유 팩 1kg당 화장지 2롤을 보상 교환해 주며 주민들의 유용 폐자원 재활용을 독려하고 있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고령, 농업 발전 모색 '힘' 토양 병해충 방제용 소독기 연시회 수작업 대비 일정·노동력 1/3 ↓

고령군은 농촌진흥청 국비 신기술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 중인 '토양 병해충 방제용 토양소독기 현장 연시회'를 지난달 27일 다산면 송곡리에서 시범사업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기술 연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시회는 개략적인 사업설명, 토양소독기 및 소독 약제 설명에 이어 직접 토양소독기로 소독 시연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번에 선보인 토양소독기는 트랙터 부착형으로 약제를 지중 살포하면서 동시에 비닐을 피복하는 복합작업기이다. 배토-로터리형성-노지평탄화-토양 훈증소독-비닐 피복 및 커팅 등 모든 작업이 기계 처리가 가능해 일반적인 수작업에 비해 작업 일수와 노동력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김일호 기자hoyai515@daum.net

김천시, 63회 도민체전 성공개최 준비 '착착'

부서·기관별 추진계획 보고회서 주요 일정 공유·대회 방향성 토의

김천시는 지난달 28일 오후 2025년도 김천에서 개최될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부서와 기관별 세부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3층 강당에서 시장 및 국·소장, 관련 부서장, 관계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체전의 주요 추진 일정을 공유하고 지난 3월 수립된 기본계획의 보완을 거친 세부 추진계획을 부서별로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시는 대회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충섭 시장은 "모든 부서와 관계기관이 동참한 적극적인 협업만이 도민체전의 성공개최 공식"이라고 강조하면서 "대규모 행사개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질서와 안전이며 각자 맡은 임무에 책임 의식을 가지고 모든 분야에 세심한 부분까지 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에서는 상징물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민체전의 각종 상징물 선정 결과를 이달 공고할 예정이며 상징물 디자인 활용을 위한 용역을 착수 및 개발할 예정이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아이비투어
대표 김재욱

경주시 용강동 1533
에이치타워 204호
☎ 0507-1374-7755

강산렌탈
대표 최성훈

경주시 천북면 동산덕산길 5
☎ 054-776-9310

마호기획광고
대표 이재희

☎ 010-3857-1111

울릉군 조직도, 미래 성장 기반으로 확 바뀐다

비전·정책개발 중심 개편 단행 3월 1단 8과→2월 1과 9과 체제 관광산림과·도시건축과 신설

울릉군이 민선8기 후반기의 미래비전과 정책개발 중심의 성장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둔 조직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난달 27일 제279회 울릉군의회 정례회에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1건이 의결됐다.

이에 군의 조직은 기존 3월 1단 8과(47팀 196명)에서 2월 1단 9과(48팀 206명) 체제로 전환된다.

경제투자유치실은 경제교통정책실로 명칭 변경되며 항공시대를 대비한 경제, 투자, 교통, 에너지 등 생활 편의성 증대를 위한 정책을 총괄 진행해 나가게 된다.

건설과는 안전관리 기능을 흡수해 안전건설단으로 명칭 변경 및 직급이 상향되며 문화관광체육실은 관광과 문화·체육으로 업무를 나눴다.

관광 분야에 산림업무를 흡수한 관광산림과를 신설해 친환경 산림생태

관광섬을 조성하게 되며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 분야에 여성·아동·청소년 업무 통합으로 다양한 신체활동을 비롯한 군민의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인문교양) 장려 등 주민의 행복한 삶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대단위 공공건축과 도시개발사업의 전문성과 속도감 배가를 위해 도시건축과를 신설하고 미래전략추진단은 미래전략과로 명칭 변경되며 군의 정책사업 청사진을 그리는 한편 저출산 대응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인력 증원이 불가피해 인력은

외청의 업무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 및 조정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다음 달 초에 공포·시행될 계획으로 군은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를 준비 중에 있다.

남한권 군수는 "민선8기에 들어 조직개편이 두 번째이다. 하반기 핵심사업의 완성을 위해 사업의 실행력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새울릉 실현을 위한 역점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으로 새로운 울릉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ast3000@naver.com



'안전사고 예방법' 놀이로 배워 머리에 쏙쏙

영덕교육청, 남정초 대상 교육 경주안전체험관 현장 견학 실시

경북도영덕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5일 남정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경북도교육청 경주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종합재난 안전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경주안전체험관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 교육기관을 방문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안전사고 예방 체험교육을 통해 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위기대

처 능력을 기르도록 학생들의 학년 수준 및 흥미도에 따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 날 체험교육은 4D영상실, 교통안전체험, 생활안전체험, 응급처치체험, 재난안전체험, 생명존중체험 등을 안전요원의 지도 아래 안전하게 이뤄졌다.

체험을 마친 남정초 6학년의 한 학생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직접 체험을 통해 배우니 더 실감나고 머리에 쏙쏙 들어왔어요. 다음에도 와서 못했던 체험을 더 하고 싶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노환 기자shghks70@naver.com



"대구 군부대는 영천으로"... 동남권 호국벨트 기틀 마련

시, 동남권 호국학술심포지엄 참석 포항·경주 등 도시 간 상생협력 참석자 500명 군부대 유치 '한뜻'

지난달 28일 서울신문이 주관하고 영천시·포항시·경주시가 공동 주최한 '2024 동남권 호국학술심포지엄'이 3개 지역 단체장, 보훈단체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2024 동남권 호국학술심포지

엄'은 6·25전쟁 당시 영천·포항·경주 주요 전투들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경북 동남권 호국벨트 구축과 3개 도시 간 상생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해 영천에서 개최됐으며 올해 포항에 이어 내년에는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박희성 육군3사관학교 교수는 '최강 북한군 특작부대를 막아낸 영천 보현산 전투'를 주제로 영천 주민들의 국난극복 의지 등 민군협력 역사를 강의해 눈길을 끌었으

며 영천시 대구 군부대 민간유치추진 위원회도 행사에 참석, 보훈단체와 함께 군부대 유치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포항 기회발전특구, 경주 APEC 유치 성공에 이어 이제는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 성공이 남았다"라며 "이번 호국학술심포지엄이 동남권 호국벨트 구축뿐 아니라 3개 도시가 상생발전하는 협력의 계기가 될 것이다. 포항·경주 시민들도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월 28일에는 대한조계종 제10교구 본사인 은혜사와 팔공산 갖바위 기원법회가 개최됐고 6월 28일에는 영천시 기독교연합회와 유치 기원 구국기도회가 열리는 등 지역 종교계에서도 군부대 유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아울러 이달에는 지역 종교계(기독교, 불교, 천주교)와 함께하는 대구 군부대 유치 합동 기원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정석열 기자isy92920@hanmail.net



울진군, 전 공무원 직급별 역량 강화 교육

역할 인식 제고·전문성 향상

울진군은 지난달 17일부터 같은달 25일까지 군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총 6기수에 걸쳐 올해 상반기 직급별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각 직급에서 요구되는 리더십 역량 및 직무 역량을 토대로 △5급 이상 공무원 대상 '고급관리자 직무연수 과정' △6급 대상 '중간관리자 역량 강화교육 및 핵심리더 양성연수' △7급 대상 '중급행정 역량강화 교육' △8급 대상 '행정실무 역량강화 교육' △9급 대상 '기초행정 역량 강화 교육' △공무직 대상 '직무 및 기본소양 강화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다.

매 기수별 교육생을 대상으로 오전 교육은 직급별 공통 특강을 개최해 구성원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으

며 오후 교육은 직급별로 요구되는 맞춤형 리더십 역량과정과 직무교육 과정 운영으로 직급별 역할 인식 제고 및 직무 전문성을 향상했다.

나아가 조직 전체의 역량강화 및 군정 조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군은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따라 전직원 공통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직급 공통 특강을 이달 중 4회 진행할 예정이다.

손병복 군수는 "직급별로 지향해야 할 역할을 재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강화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전문 인재를 거듭나길 바란다"며 "군민 중심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섬김 행정을 실현하는 공무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

청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개최

활동 영상 시청·전문가 초청 특강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달 27일 '2024년 청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협의체의 활발한 활동 촉진을 위해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청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했으며 대표협의체 위원, 실무협의체 위원, 실무분과 위원, 9개 읍·면 협의체 위원 및 관계기관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체 활동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부산중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권종호 경감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사례' 특강, 체육교육컨설팅 김현주 대표의 '상호존중 세대공감 소통'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송근진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워크숍을 통해 위원들의 역량 강화 및 소통의 시간을 갖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협의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하수 군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 청도군의 복지 사각지대와 지역자원 발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그 현장에 위원님들께서 늘 함께 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artmong0@naver.com

경북상인연합회
회장 정 동 식

경주시 원화로 291
☎ 054-771-3344

한국대중음악박물관
부관장 도 인 숙

경주시 엑스포로 9
☎ 054-776-5502

윤영선 조리명인의 평양갈비

경주시 원효로 105번길 10
☎ 054-774-5445

김재욱 칠곡군수, 문체부 찾아 '세일즈 행정'

종교 역사·문화시설 건립 위한 왜관수도원장과 국비 확보 '박차' 종교 유적지 복원 등 보존·전승 관광인프라 제고, 지역 경제 견인



칠곡군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왜관수도원 종교문화시설 건립 추진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해 세일즈 행정에 나섰다. 이날 김재욱 군수는 박현동 왜관수도원장과 함께 전병국 제1차관과 면담하면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으로 전통종교문화 체험시설 건립, 종교 유적지의 역사적 복원, 종교화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민족문화유산의 보존·전승 및 국민 여가·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칠곡군은 왜관수도원의 다양한 소장

품과 독일 수도원으로부터 반환받은 경계 정선 화첩, 식물표본, 양봉요지 등의 문화유산을 보존·관리·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천주교 역사와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최근 준공한 왜관수도원 문화영상센터(승효상 건축가 설계)와 연계해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재욱 군수는 "칠곡군은 다양한 천주교 문화유산이 지금까지 잘 남아있다"면서 "왜관수도원의 소장품과 반환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하고 한티 가는 길과 여러 성지 등 관광자원과 연계해 종교인과 비종교인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왜관읍에 위치한 왜관수도원은 지난 1909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진출한 가톨릭교회 남주수도회 '성 베네딕도회' 소속으로 서울 백동수도원 및 송공·송신학교를 건립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구미, 자전거 사고 '외국인 보장 확대'

시에 주소 둔 시민이면 자동 가입 사업자 소유 PM은 가입대상 제외

구미시가 이달 1일부터 자전거·PM보험(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공공자전거 사고와 외국인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용자전거는 동락공원과 낙동강체육공원에서 대여하는 자전거로 사고발생일 당시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구미시에 주소 둔 시민이면 자동 가입된다.

자전거와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단 사업자 소유 PM은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내용은 △자전거와 PM(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시 2000만원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20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25만원 △7일 이상 입원시(4주 이상 진단자 중) 20만원이 지급된다.(공용자전거의 경우 사고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입원 1일당 1만원 추가 보상)

또한 자전거와 PM(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벌금 부담시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시 최대 200만원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김장호 시장은 "뜻하지 않은 자전거와 PM 사고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및 자전거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영양, 하천 생태계 보존 위한 수산종자 방류

어류 34만여마리·다슬기 58만여패 불법어로행위 지도단속 추진도

영양군은 지난달 28일 영양읍 감천리 및 지역 내 주요 하천에서 메기, 붕어, 미꾸리 34만7000마리와 다슬기(종패) 58만8000패를 방류해 내수면 수산자원 및 토종생태계 보존에 힘쓰고 있다.

이번 방류에 동원된 수산종자(치어)는 방류수산물전염병검사(잉어봄바 이러스병 외 1)를 마친 우수 종자들로 오도창 군수를 비롯해 김석현 군의회 의장·군의원 및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향토 어종인 메기의 3종 93만5000마리를 지역 내 하천 및 저수지에 방류했다. 김경태 기자tae6611@naver.com

향토 어종 치어방류는 외래 어종 유입 및 어족 남획 등으로 줄어드는 향토 어종 자원을 보호하고 증식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환경오염 등으로 점차 사라져가는 토속어종을 보호 육성해 미래의 어족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치어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다.

오도창 군수는 "수산종자(치어) 방류가 내수면 어자원 육성에 그치지 않고 방류된 어류가 불법포획이 되지 않도록 불법어로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영양군민들께서도 어족자원 보호육성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봉화군-수원시, 지역 간 동반 성장·협력의 파트너로

우호결연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축제 방문 등 교류 꾸준히 이어와 문화·예술 등 다방면 장점 공유



봉화군과 수원시가 지난달 28일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우호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현국 봉화군수, 김상희 봉화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실·과·소장 등 40명과 이재준 수원시 시장,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등 수원시 측 30명이 참석해 우호결연을 축하했다.

봉화군과 수원시는 지난 2005년 9월 10일 교류를 시작으로 상호 축제 방문을 통해 꾸준히 교류를 이어왔으며 이번 우호결연 협약을 통해 상호발전과 협력관계 확대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 예술, 관광,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지자체가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고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협약이 양 지자체 간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정희영 기자jhy4430@hanmail.net

경주우체국, 브랜드관 개설... 소상공인·중소기업 매출 UP

지역 특산물 할인 판매 등 '눈길' 쿠폰 예산지원 등 전략적 제휴

경주시 우체국 브랜드관에는 경주 지역특산품인 찰보리빵 등 6가지 상품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우체국쇼핑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공익적 우편서비스로 현재 전국 각 지

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과 중견기업 우수제품들을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서비스이다. 이번 행사는 경주시의 쿠폰(10%~30%) 예산지원으로 한국우편사업진흥원(우체국쇼핑)과 (재)경북경제진흥원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경주시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

고 밝혔다. 구입 절차는 우체국쇼핑몰(www.epost.go.kr)에서 회원가입 후 지역브랜드관-경주시브랜드관에서 이용 가능하며 특가전은 예산(7250만원)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숙 우체국장은 "이번 브랜드관 개설을 통해 경주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매출증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울릉, 슬로푸드 미각교육 강사과정 '성료'

울릉군은 지난달 28일부터 28일까지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 전문강사를 초빙해 '2024년 슬로푸드 미각교육 강사과정'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 울릉지부 회원 및 음식문화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울릉군의 맛의 방주에 등재된 식재료를 활용해 지역전통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며 획일화된 인공 감미료와 대량생산 방식을 지양하고 바른 먹거리 문화 정착과 오감을 활용한 교육에 중점을 뒀다.

또한 농업·농촌에서 생산되는 먹거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건강한 식생활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이론교육과 미각을 활용한 오감오미 실습교육을

통해 식생활의 가치와 생태미식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한 박경애 슬로푸드울릉군지부 부회장은 "기후위기사대 먹거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게 됐다"며 "지역주민들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바른먹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남한권 군수는 "교육 이수 후 우리지역 특산물 본연의 맛을 제대로 알리는 미각강사로서 활동을 기대하며 앞으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울릉군 슬로푸드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gst3000@naver.com

더블에이치플랜

DHP

종합이벤트 기획 · 연출 · 진행

대표 현병희

Mobile : 010-3517-1105

E-mail : hbh0912@naver.com

경북 경주시 양정로 235(동천동) 덕양빌딩 7층

‘기회발전특구’ 지정된 포항, 이차전지 산업 주도권 선점

영일만·블루밸리 산단 77만평 기초자치단체 중에 가장 면적 커 8개 시도 투자액의 약 20% 차지 기업 협력·수요맞춤형 정책 추진

포항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에 매카로 우뚝서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비롯해 올해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교육발전특구, 최근 기회발전특구까지 지정받으며 이차전지 산업 주도권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

지난달 20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포항시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발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고시에 따르면 포항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35만9000평,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41만5000평 등 총 77



만4000평이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됐다. 이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면적이 크다.

특히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지정 면적 크기 순서)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서는 40조원

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포항은 그중 가장 많은 7조7680억원의 투자가 계획돼 있다. 전체 투자예산액

의 약 20%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가 가장 크다.

포항시는 이강덕 시장 취임 이후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을 내다보고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를 유치해 에코프로 포항캠퍼스를 조성했으며,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

이후 포스코퓨처엠, 에너지메트리얼즈, CNGR 등 이차전지 소재 기업의 투자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로 인해 지난해 포항지역 전체 수출액 110억달러 중 이차전지 분야가 43억달러로 38.5%를 차지, 철강산업 중심에서 산업구조 다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포항시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고교-대학-기업으로 이어지는 이차전지 맞춤형 인력양성으로 지역 우수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울 방침이다.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기업들은 법인세, 재산세 감면 등 정부의 인센티브 혜택을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력 확보에 재투자할 수 있게 돼 이차전지 산업의 세계 주도권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형 기회발전특구는 기업과의 상호협력, 수요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향후 면적 확대에 대비해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방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상향식으로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포항시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 방침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발빠르게 기회발전특구유역을 추진해 기본계획을 세웠으며 경북도와 협업하면서 중앙부처에 관련 사항을 적극 건의하는 등 가이드라인에 맞춰 특구 지정에 맞춤형 대응을 해왔다.

최연태 기자cyl4568@naver.com

‘K-의료기기’ 인도시장 진출... 케이메디허브, 지원사격

필러재단·인더텍과 업무협약 6월 KOAMEX에서 인연 맺어 올해 시범적 300만 달러 구매 제품 만족하면 매년 구매계약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는 지난달 25일 인도의 필러재단, ㈜인더텍과 3자 업무협약을 맺고 국산 의료기기의 인도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필러재단은 올해 시범적으로 300만 달러(40억원) 규모의 국산 의료기기를 구매하기로 했다. 이후 제품에 만족할 경우 매년 KOAMEX(코아멕스)에 참가해 300만달러(40억원) 구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케이메디허브와 ㈜인더텍이 인도에서 필러재단 관계자를 직접 만나 국산 의료기기 제품의 우수성을 알린 결과 필러재단 관계자가 한국에 답방하면서 추진됐다.

필러재단 관계자들이 이달 21일, 22일 양일간 KOAMEX에 참가해 대한민국 의료제품의 우수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40억원 규모의 계약상담이 이뤄졌다.

필러재단(Father Muller Charitable Institutions, FMCI)은 1880년 설립된 자선재단으로 인도 내 대학병원을 포함해 6개 의료기관에서 1500병상 이상 운영하고 있다. 독일 신부인 필러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만든 재단으로 현재도 인도 저소득층을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힘쓰고 있다.

코엘료 신부(Rev. Fr Richard Aloysius Coelho), 조시 매튜(Joshy Mathew) 관계자 등은 “대한민국에 관심이 있던 차에 인도까지 방방해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우수성을 설명해 주는 양진영 이사장을 만난 후 방한을 결심했다”며 “의사들과 함께 KOAMEX에 방문해 직접 제품들을 살펴봤는데 안대와 피부미용기 등 몇몇 제품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첫 수입은 소규모로 시작하지만 사용 후 제품에 대한 반응이 좋으면 대한민국산 의료기기 제품의 수입을 늘리고 싶다는 의견을 밝혀 박수를 받았다.

이번 만남을 주선한 ㈜인더텍(대표 이사 천승호)도 업무협약에 함께 했다. ㈜인더텍은 인지재활 소프트웨어 의료

기기의 수출을 위해 인도에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현지법인을 통해 우수한 국내제품의 인도 시장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천승호 ㈜인더텍 대표이사는 “인도 수출을 위해 뚝을 귀한 인연을 케이메디허브에 소개시켜준 것은 K팝, K문화처럼 K메디(K의료)가 자리잡아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유리해진다는 대의를 위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독일 의사였던 필러가 인도에서 존경받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병환자들을 위해 치료를 지원했던 선의를 인도 국민들이 알아줬기 때문”이라며 “메이드인 코리아의 기술력에 대해서도 인도가 알아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의성眞자두 ‘전국 소비자 입맛’ 잡는다! 수도권도매시장 본격 출하... 유통 확대

의성군은 ‘의성眞자두’의 수도권 도매시장 첫 출하에 따라 지난달 25일 의성농부농협자두공동출하위원회, 의성조공법인, 농업분야 공무원 등 30여명이 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자두 경매를 참관하고 유통 확대를 위한 홍보 및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으로 출하를 개시한 자두에 대한 청과법인 경매사와 중도매인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점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경매 참관을 통해 다양한 산지의 농산물 품위, 낙찰가격, 포장규격 등 전반적인 유통 동향을 파악했다.

의성군은 전국 자두 재배면적의 약

20%를 차지하는 최대산지로 가락시장을 포함한 수도권 도매시장에서 중추적인 자두 공급처로 역할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농가 조직화 및 유통조직의 역량 강화를 통해 도매시장 이외에도 대형유통업체,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유통경로에서 교섭력을 확대하고 있다.

김주수 군수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전국 최고의 자두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의성군 농업인이 제값 받는 유통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살인 폭염으로부터 쪽방촌 주민 지켜라”

가스공, 식료품·가능성 의류 등 은누리 나눔박스 제작 긴급 지원

한국가스공사는 폭서기를 맞아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 거주 주민들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가스공사는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5개 지역 쪽방 상담소에

‘은누리 나눔 박스’를 기부한다. 가스공사는 쪽방촌 거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필요물품을 사전에 조사해 필수 식료품과 여름 기능성 의류 등을 포함한 ‘은누리 나눔 박스’를 제작했다.

또한 가스공사는 각 지역 쪽방 상담소와 함께 ‘폭염 모니터링단’을 운영

해 폭서기 동안 쪽방 주민의 건강 및 안전 상태를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올해는 역대급으로 무더운 여름이 예보된 만큼, 폭염에 대비해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생활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영덕군
Yeongdeok-Gun

환상의바닷길, 바다와하늘이 함께 걷는 길
함께 걸어요, 블루시티 영덕

최원의 제16대 칠곡소방서장 취임

칠곡소방서는 이달 1일자로 최원의(사진) 제16대 소방서장이 취임한다고 밝혔다. 최원의 서장은 김천 출신으로 지난 1993년에 소방공직에 입문해 고령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장,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상황팀장·정보기획팀장, 소방행정과 기획조직팀장, 예천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경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 건립 추진단장, 경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또한 여러 보직을 두루 경험함으로써 소방행정과 현장지휘능력을 겸비했으며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으로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직원들과의 신뢰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의 서장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안전하고 행복한 칠곡군을 만들기 위해 칠곡소방서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송홍달 기자song081700@naver.com

의성,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발굴



의성군은 지난달 27일 ‘의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의 스마트 영농관리 모델과 의성 마늘 기계화 재배 모델 설계를 위한 ‘의성 노지 스마트농업 시설·장비 스마트화 세부실행 모델 개발 운영’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의성군의 핵심 농산품인 마늘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의 첫걸음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와 농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관수 도입방안 및 모델 설계 △기상재해예찰 운영 모델 설계 △인공위성·드론 활용 생육관리 및 병해충 모니터링 체계 정립 △자율주행 농기계를 포함한 마늘 기계화 재배모델 정립 등이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장애인 인식 개선 통해 따뜻한 세상 만들자”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관 장애인식개선공모전 시상식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달 28일 권익옹호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2024 장애인식개선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공모전에는 학생, 교사, 주부, 회사원 등 다양한 계층에서 작품 35점이 접수됐다.

최우수상은 최주락 교사(수필부문)와 이에림 학생(그림·표어부문)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박현아 학생, 오준석 학생(그림·표어부문), 최아영 학생(수필부문)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금진주 주부(캘리그래피부문)와 김지호 학생(수필부문), 김지효 학생(시부문), 김도형 취업준비생(그림·표어부문), 손희웅 교사(수필

부문)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귀룡 센터장은 “이번 공모전은 어느때 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많았고 특별히 학생들의 참여가 많아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는 기회가 됐다”며 “공모전을 통해 장애인을 향

한 인식이 개선되고 함께 어울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2006년 지역 최초로 지역 중증장애

인 당사자들이 자립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에서 한 사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 책임을 다하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성주 백산약국, 지역 청소년 꿈·열정 ‘응원’

지난달 27일 백산약국에서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에 1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백산약국은 성주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 발전과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1000만원을 기탁해 누적액은 8000만원에 이르며 총 누적액이 1억원에 달하는 오는 2026년까지 선행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김석영 대표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병환 이사장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존경받아 마땅하다”며 “어려운 여건속에서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일호 기자hoyal515@daum.net



점촌5동 자연보호협, 유해식물 제거 ‘구슬땀’ 예천 효자면, 산사태·침수 피해 최소화 ‘힘’



문경시 점촌5동 소재의 자연보호협회는 지난달 27일 모전천 일대 및 길가에 자생하고 있는 생태교란식물인 가시박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가시박은 번식력이 뛰어나고 곤충들의 먹이가 되지 않아 지난 2009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됐다. 성장 초기 가시박을 제거하면 종자 생산을 원천 봉

쇄하는 효과가 있어 이날 회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50여kg정도의 어린 개체들을 뿌리째 뽑으며 생태교란 유해식물 제거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윤태호 협회회장은 “앞으로도 생태하천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예천군 효자면은 지난달 26일부터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 홍보 활동을 강화했다.

산사태 취약지구나 침수 위험이 높은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청각 자료 시청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주민 대피자 명단을 작성해 비치하는 등 비상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한

에 알아볼 수 있는 대피소 안내판을 지역 내 대피소에 게시했다.

박대석 면장은 “아무리 큰 재난도 충실히 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비상 상황 발생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의영 기자p04140@naver.com

동 정

대구자치경찰의 날 지정 선포식

홍준표 대구시장은 1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대구자치경찰의 날 지정 선포식에 참석한다.

소통·공감의 날 행사서 현안 논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1일 오전 10시 용비관에서 개최되는 7월 소통·공감의 날 행사에 참석해 현안을 논의한다.

취임 2주년 지역 기자 간담회 참석

윤경희 청송군수는 1일 오전 11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민선8기 윤경희 청송군수 취임 2주년 지역 기자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민선8기 2주년 언론관계자 간담회

오도창 영양군수는 1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민선8기 2주년 언론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소통한다.

취임 2주년 기념식·정례조회 참석

박현국 봉화군수는 1일 오전 9시 20분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민선8기 취임 2주년 기념식 및 정례조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청송 유관기관 합동 실종예방 훈련



청송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달 26일 파천면 신기리 마을에서 ‘치매극복 실종예방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이날 청송경찰서, 진보면맞춤형복지팀, 정신건강복지센터, 신기보건진료소 등 유관기관과 지역주민 80여명이 참여했다.

또한 치매어르신들의 작품 및 활동 사진 전시회, 포토존, 뇌건강·마음건강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렸다.

윤경희 군수는 “앞으로도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청송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의관정제 선비의 깃

'의관정제-선비의 깃'은 배향인물(이연적)과 선비문화와 관련된 체험, 전시 등 복합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육산사원의 문화적, 건축적, 사회적 가치(OUV)를 확산하고 서원의 무거운 이미지를 다가가기 쉽게 만들고자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명	기간/참가비/대상	내용	장소	내용
갯비구 놀자	2024년 4월~10월 매주 토, 일 (총 54회) 일반인, 외국인, 단체 무료 상시 운영	갯비구 투어 스텔프 미션투어 프로그램	육산사원	·구곡 시그널 ·육산총 동당 ·독학록 독학당 ·육산골레스 ·양동재 동당
의관정제-선비의 깃	2024년 4월~10월 1박 2일 (총 2회) 단체 20명 이내 유료 운영	1.의관정제: 의관정제(衣冠亭)는 옷과 모자를 버리고 가지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선비들은 걸음속이 발간이 항상 맑고 마음을 정돈한 후 공부에 임했습니다. 선비처럼 걷는 법을 배워보며 몸과 마음을 정돈해 볼까요? 2.육산정제: 선비들은 공부에만 몰두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원의 구조를 살펴보면 유식(遊息) 공간인 누각이 있어 공부뿐만 아니라 휴식도 중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옛 선비처럼 차 한잔과 함께 자연 속에서 휴식을 만끽해 보는 건 어떨까요? 3.삼색명찰: 육산사원에서는 조선 최고 서예가들의 글씨를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갈당 건물 치마에는 김정희 글씨 현판이 걸려있고, 안쪽 마루 위에는 후대에 다시 제작한 이산해 글씨 현판, 무병루의 현판은 안석봉의 글씨로 새겨져 있습니다. 현판 글씨를 한 획씩 그어보며 명필들의 글씨를 감상해 볼까요? 4.육산의 가치: 구인당(求仁堂)은 회재의 저서 '구인록(求仁錄)'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유생들이 모여 학문을 연구하고 논하는 장소로 강학 공간의 중심 건물입니다. 학문을 연구하던 구인당에서 육산사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선비들의 삶과 철학을 배우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린 역사 속에 숨겨진 지혜와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5.만인록: 육산사원에 소장중인 만인소를 모티브한 프로그램으로 육산사원에서 느낀점을 적어보는 마지막 코스	육산사원 독학당 양동마을	

문의: 접수 신라문화원 054-777-1950 www.silla.or.kr

주최: 육산문화원 후원: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



의성군은 지난달 27일 의성군4H연합회 회원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접 재배한 감자 350박스를 지역사회복지 시설에 기부하는 사랑의 감자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지난 3월부터 옥산면 정자리에 위치한 4H과제포에서 재배한 감자를 수확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진행했다. 회원들은 지난해에도 상반기에는 감자, 하반기에는 배추를 재배해 기부했으며 "땀과 노력으로 직접 생산한 감자 기부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더없이 기쁘다"라고 입을 모았다.

김주수 군수는 "4H회원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지역사회활동에 앞장서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4H연합회는 지·덕·노·체의 4H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청년농업인 학습단체로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행복한 의성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김천 증산면 지보협, 주거환경개선



김천시 증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달 27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정의 주거개선을 위한 '구해줘 흙집' 사업을 했다. 이날 치매 및 지체·청각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 부부 가구를 방문해 싱크대 교체, 집 안팎 청소 등을 실시했다.

김삼선 위원장은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는 이웃사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가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굴해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우중 면장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증산면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전했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손병복 울진군수, 위기 속 사회발전 노력 '결실로'

사회발전 대상 지방행정 대상 지방정부 시대 선도 최선 다짐

손병복 울진군수가 지난달 28일 '제9회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지방행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은 한국언론연합회 등이 주관하고 해마다 각 분야의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대상자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은 지난 2년간 민선8기 손병복 군수의 군정 운영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과 사회발전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됐다.

손병복 군수는 민선8기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통해 후보지에 선정되고 선제적인 입주기업 수요확보 등을 통해 올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국가정책 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달에 기재부의 예타면제 확정만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손 군수의 군정 운영은 울진군 발전과 더불어 탄소중립시대 경제적인 수소생산을 통해 국가 경쟁력 도약을 위한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신항울 3·4호기 건설이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주 설비 시공사와 상생협력을 맺는 등의 노력이 공로로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경쟁력있는 울진형 산업기반 구축 △울진관광 1000만 시대 준비 △보편적인 복지체계 기반 마련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마련 △군민과 소통하고 섬기는 행정 실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발전에도 큰 역할을 했다.

손병복 군수는 "오늘의 수상은 저를 믿고 함께 해준 울진 군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취임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노력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것 같아 매우 기쁘고 앞으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딛고 지방정부 시대를 선도하는 울진군으로 성장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주 기자kjs09102@naver.com

고령 전물군경유족회, 충혼탑 환경정화 펼쳐

전물군경유족회 고령군지회는 지난달 26일 전물군경유족회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충혼탑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전물군경유족회는 충혼탑 주변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환경정화 봉사 활동을 통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일과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김영옥 회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로 모범을 보이고 지역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이번 환경정화 운동을 준비하게 됐다"라며 "지역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린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뜻깊은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일호 기자hoyaf1515@daum.net



예천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헌옷모으기 눈길



예천군 새마을부녀회는 지난달 27일 8개 읍·6면 부녀회장과 새마을지도자 등 20여명이 모여 '사랑의 헌옷모으기'를 했다.

이날 모은 헌 옷들을 고물상에 판매 후 얻는 수익금은 저소득층 및 복지 사

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돕기 위한 활동 기금으로 사용된다.

최금숙 회장은 "앞으로도 자원재활용을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예천군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상주 한울로타리, 아동에게 비타민 지원 온정



상주 한울로타리클럽은 지난달 27일 상주시 드림스타트에 비타민 120통(34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한울로타리클럽은 신생클럽으로 이날 창단식을 가졌으며 35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후원뿐

만 아니라 취약계층 5가구에 정수기 5대도 후원했다. 이날 후원받은 비타민은 120명 아동에게 전달됐으며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김효준 신임 영양 부군수 취임

김효준 신임 영양 부군수가 오늘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경북도의 인사발령에 따라 부군수로 임명된 김효준 부군수는 군청에서 오도창 군수로부터 임용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영천 출신인 김효준 부군수는 지난 1993년 울릉군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1997년 경북도 도로과로 전입해 2016년 칠곡군 수도사업소장으로 승진했다.

또한 사무관 승진 후 환동해지역본부 항만개발팀, 건설도시국 도로철도과에서 철도지원 및 도로계획팀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1월 경북도 북부건설사업소장으로 승진해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했으며 같은해 1월부터 경북도 건설도시국 도로철도과장으로 근무하다 이번에 부군수로 부임했다.

김효준 부군수는 "올해 민선8기가 2주년을 맞이하고 남은 절반을 향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부군수로 부임하게 돼 책임감이 막중하다"라며 "영양군의 혁신적인 변화에 앞장서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오도창 군수님께서 추진하는 각종 주요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tae6611@naver.com

문경,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발대



문경시는 지난달 26일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손병일 경북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박세정 명예단체장, 김경범 단장, 신윤교 전 단장 등 총 2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김경범 단장은 경북도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온 국민이 함께하는 만원 이상 기부 운동의 일환으로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손병일 사무처장은 "문경시에 더 많은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MY UNIVERSE GYEONGSAN

부족하다 시민중심 행복경산

대학도시를 넘어 창업도시로! 'ICT허브도시 경산'



초등학교 서예수업.



태고의 흔적.



고문진보 중에서.

박종갑, 한국 첫 일본 서사교과서에 등재

(교육서예가)

미술교과서의 서예 단원과 서예 수업 장면 소개 '화제'

늘샘 박종갑 교육서예가가 국내 초·중·고교 미술교과서에 자작품이 실린데 이어 이번에는 최근 일본 초등학교 6학년 書寫教科書(서사교과서-한국에서는 서예교과서)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서예를 지도하는 모습으로 한국 최초로 소개됐다.

2024년 교육출판에서 발행한 6학년 서사교과서의 '世界の書<'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아라비아의 글씨와 영어 글씨까지 소개됐다. 이 중 한국은 미술교과서의 서예 단원과 서예의 수업 장면이 소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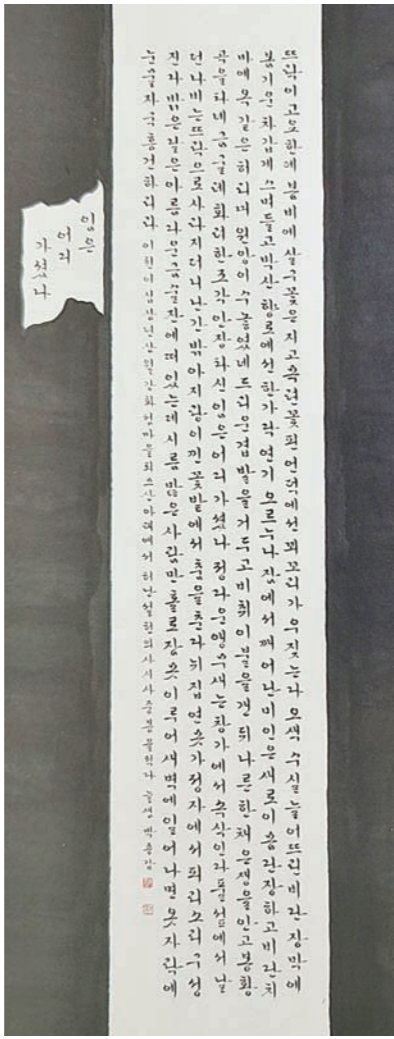
재일교포 김경순 서예가에 의하면 일본의 구사쓰 유스케 동경 학예대학교 교수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일본의 초등학교 서사교과서로 한국분이 나 한국의 서예가가 소개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한다. 박종갑 선생님이 일본의 초등학교 書寫·書道教育 관계자 중에서 유명한 한국의 서예 선생이 되셨다"라고 극찬했다.

박 선생은 지난 1974년 춘천교육대학에서 재학시절부터 서예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1975년 대학시절에 학생회호대회 대학부에서 최고상을 수상했고 1976년 한국서예공모전(한국미협 주최)에서 입상, 1977년 제26회 국전에 한글서예(조국강산 2500여자)로 출품해 최연소 입선을 한 후 지금까지 46여년간을 초등학교에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서예를 꾸준히 지도해왔고 한국서예가협회 부회장, 한국현대서각회 회장 등 여러 서예·서각 단체에서 작품 활동하고 있다.

신수경 기자ssk949012@naver.com



늘샘 박종갑 교육서예가.



허남철현의 사시사 중.



雄飛(웅비).



祈願(기원).



청산별곡.

3천원으로 즐기는 '화려한 클래식 무대'

포항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4일 문예회관 대공연장서 열려

포항시립교향악단 제208회 정기연주회 '팡파르'가 오는 4일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팡파르'를 메인 테마로 정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곡을 연주해 무더운 여름 청중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첫 곡은 차이콥스키의 '이탈리아 기상곡'이다. 기상곡은 흔히 카프리치오라고도 불리는 자유로운 형식의 즉흥곡으로 일반적인 교향곡이나 관현악 작품과는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어 특유의 밝고 활기찬 분위기가 매력적인 곡이다.

이어지는 연주는 아르투인 '트럼펫 협주곡'. 지난 1950년에 발표된 이 곡은 당시 불쇼이 극장의 트럼펫 연주자이던 도키쉬체를 위해 작곡된 곡으로 강한 힘과 강렬한 연주 테크닉을 요구하는 곡으로 유명하다.

이번 협주곡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유병엽 경희대 교수가 협연을 맡았다. 대전시립교향악단에서 트럼펫 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친 유병엽 연주자는 이번 연주에서 부드러운 음색과 깊은 감성을 품은 화려한 금관악기의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 후반부는 무소르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이 연주된다. 3관 편성의 웅장하고 화려한 사운드를 뽐내는 이 곡은 무소르스키가 건축가 겸 화가인 친구 빅토르 알렉산드로비치 하르트만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열린 전시회에서 그의 유작을 보며 영감을 받아 쓴 작품이다. 피아노곡으로 주로 연주된 이 곡은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자신만의 색깔을 선보이고자 연주된 곡이지만 인상파의 거장 모리스 라벨이 관현악으로 편곡한 3관 편성의 관현악곡으로 자주 연주되기도 한다.

티켓은 전 좌석 3000원이며 잔여석에 한해 현장 구입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054-270-5483)로 하면 된다.

최연태 기자cyt4568@naver.com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종자보전' 주제 전시

'사명, 미래를 지키는 사람들'展 주요식물 종자·표본 등 '한눈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종자보전을 주제로 한 '사명(使命, mission), 미래를 지키는 사람들' 특별전시회가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산림과학기술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지원 선진화 사업예산과 출연능력의 기부금을 지원받아 진행된다.

계원예술대학교와 엠제로랩이 기획과 디자인을 맡았으며 산촌의 활력을 되살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방문자센터 1층 전시실에서 선보인다.

전시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종자보전의 가치와 산림 내 작물재래원종(CWR) 중심의 식물 수집·연구성과, 중앙아시아 현지외 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활동, 종자 보관 과정, 주요식물 종자 및 표본 등을 볼 수 있다.

전시기획과 총괄 지도를 맡은 계원 예술대학교 전시콘텐츠디자인과 최정심 교수는 "종자 보전이야말로 기후위기를 초래한 인류가 해야 할 책임이자 사명"이라며 전시에 담긴 의미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상이변으로 인해 생존 위기에 놓인 대표식물이자 봉화의 특



산물인 사과와 함께 야광나무, 능금나무도 함께 전시된다.

전시 기간에는 생물종다양성과 생물간 상호작용 이해를 위한 대형 젠가 체험 및 종자관련 퀴즈가 운영되며 사과 결실기에는 중앙 사과를 활용한 원데이 쿠키클래스와 시식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창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전시, 미술 분야 일부 교수 및 학생 23명과 봉화지역 사과재배 농가, 종자 연구진들이 수목원 조성 이후 최초로 협업해 추진한 전시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정희영 기자jhy4430@hanmail.net

■ 특 별 기 고

지방소멸이 행정구역 때문인가?

김휘태
전 안동시 풍천면장



수도권 블랙홀을 막기 위해 광역행정구역 통합을 해야 된다고 난리다. 한술 더 떠서 저출산 인구소멸까지 행정통합으로 해결된다고 만병통치약처럼 주장하고 있다.

과연 지방소멸이 행정구역 때문인가? 논리적으로 밝혀보자. 수도권으로 모이는 이유는 일자리와 성공 기회를 얻는 것이다. 지방에서는 그만큼 경제적 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규모의 경제가 아닌 지방인구만큼이라도 먹고살 자족경제가 안 되는 것은 그만큼 지방에 투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관광이나 산유국처럼 투자하지 않아도 생산성이 넘치는 지역은 저절로 발전하지만 대부분 지역은 투자하고 개발한 만큼 발전하는 것이다. 산업화과정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지방이 어렵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방예산은 20%밖에 안 된다. 80%를 국가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20조와 123조의 국토균형개발과 지역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물론 국방, 외교 등 국가예산이 더 많을 수밖에

에 없지만 지방 40%와 국가 60% 정도는 돼야 지방균형발전을 꾀하고 지방인구소멸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 행정도 아직까지 완전한 분권이 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의 자체 조직권이나 정책, 감사 등 어느 것 하나 자치분권이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 인사도 광역은 국가에서 기초는 광역에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공무원 계급제 또한 낮은 관료제 틀을 그대로 유지해 지방자치 역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행정실무만 짚어봐도 행정구역 통합과 지방소멸은 크게 무관하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행정체계로 지방자치분권을 완전하게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체계를 개편하거나 행정효율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통합만이 능사라는 주장은 논리도 설득력도 없다.

물론 광역행정통합 조건으로 연방제 같은 완전한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반드시 광역행정통합으로 지방분권을 이뤄야 한다는 것은 편의적이고 정략적인 주장이다. 예를 들어서 대구·경북 통합예산으로 북부나 농촌지역 균형발전과 광역교통망 등에 얼마나 집중투자할 수 있을까? 기존의 대구지역 예산을 쉽게 바꾸고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국가적으로 2단계 행정 효율화를 추진한다면 도를 폐지하고 중앙과 생활권 시·군

으로 개편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

광역시에는 밀집된 대도시구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서 더욱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방자치 초기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금과옥조처럼 외국이나 국내의 단편적인 통합사례를 인용하지만 일본이나 유럽 등 대부분이 국가적 행정효율화 차원에서 연합이나 통합을 추진했으며 각 지방의 생존전략은 결국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광역경제권을 형성해도 지방 자체별로 특화된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면 그 지방은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경북지역은 전국의 20%나 되는 광활한 면적에 22개 시·군의 생활권이 분산돼 압축된 도시 같은 통합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농촌인구 고령화도 통합효과를 낼 만한 에너지가 부족할 것이다. 인구 100만 도시로 마·청·진 통합시의 14년간 인구·경제·균형발전 효과가 모두 미흡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방행정구조 개편은 국가적인 정책으로 헌법과 법률 제·개정은 물론 국회를 통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한 백년대계인데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이 또다시 관 주도로 밀어붙인다면 300만 도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얼마든지 제안하되 명쾌한 균형발전 논리 입증과 민주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시도 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독 자 기 고

반려견순찰대와 함께하는 안전한 칠곡군 만들기

양화영
칠곡경찰서 범죄예방계



올해 초 개봉한 영화 '도그데이즈'는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휴먼영화이다.

해당 영화가 관심을 받았던 이유에는 짜임새 있는 스토리 구성뿐만 아니라 반려인구 1500만 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잘 반영한 것도 크게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들이 이젠 페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일상에 스

며들어 있다. 반려견 유치원·호텔이 생겨나는가 하면 반려견과 동반 입장해 함께 쇼핑도 하고 식사 및 영화도 볼 수 있는 문화공간이 생겨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더불어 사람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순찰활동에 대해서도 반려견이 참여해 지역 치안을 위해 힘쓰고 있는 좋은 사례가 있기에 이에 대한 소개를 해보려고 한다.

칠곡경찰서는 반려동물협화회의 협업을 통해 반려견의 산책활동과 순찰활동을 접목한 주민 참여형 치안 프로그램인 '반려견순찰대'를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신청자 2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순찰대원들은 반려견과 산책 도중 범죄의심 상황, 응급환자, 화재, 범죄취약지역 등 발견 시 신속 신고하는 등 경찰관의 치안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초 강풍에 의해 파손된 공사 현장 벽면 페널을 조기에 발견해 보행자의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며 동네 구석구석을 산책하던 중 발견한 범죄취약 요인을 범죄예방경찰관(CPO)에게 적극 통보해 셉테드 사업 자료 수집에도 많은 도움을 줬다.

그럼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군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지난 4월 16일 경찰·반려견순찰대·자율방범대의 합동순찰을 지켜본 군민들은 '형광색 조끼를 입은 반려견들이 순찰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는데 기특하면서도 매우 신선하다', '늦은 시간 귀가하는 길이 으스스해서 무서웠는데 반려견순찰대 덕에 안심이다'라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줬다.

칠곡군 반려견순찰대는 앞으로도 범죄예방경찰관(CPO)의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협력치안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한 칠곡군 만들기'에 앞장서고 싶은 견주와 용기 있는 반려견 용사들이 있다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 설

하반기도 고환율 이어지나

최근 달러·원 환율이 1380원 안팎을 기록하며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경제·금리 정책 전환의 불확실성과 역대급 초엔저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고환율'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날보다 9.1원 내린 1376.7원에 거래를 마쳤다. 당초 1386.6원으로 출발했으나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화가 이어지면 서 하락세가 가속했다.

한시적으로 달러화 약세로 돌아섰으나 안심하기는 이르다. 지난 한달 동안 달러·원 환율은 상승세를 이어왔다. 지난달 17일부터 9거래일 연속 1380원대를 유지했으며 장중 1390원선을 상회해 1400원을 위협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1371원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1분기(1418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은행(Fed)이 연일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며 고금리 기조를 유지한 영향이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5.25-5.5%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준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올해 금리를 한 차례만 인하할 것을 시사하며 시장 기대감도 낮아졌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발표된 미국의 지난달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둔화해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고 있으나 연준은 신중하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보호무역 정책 등으로 달러 강세를 유지해 결국 달러·원 환율을 상승시킬 거란 전망도 있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 시 1300원대 후반 고착화 또는 1400원대 진입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중국 경제 부진에 따른 위안화 약세, 달러당 161원 선까지 찍은 '슈퍼엔저 현상'도 '깡달러'에 영향을 미친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금리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환율 방어에도 실패하고 있다. 조기 총선을 앞둔 프랑스 등 유럽의 정치 불확실성도 환율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달러·원 환율이 1300원대 중후반을 한동안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후반에서 한동안 등락할 것"이라며 "지난달 수출에서 유의미한 비미국 수요 회복을 확인되기 어려워 수출 성장 지속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고 했다.

이 연구원은 "통화정책, 펀더멘털, 지정학적 상황 모두 아직까지는 달러가 크게 약해질 이유가 없다"며 "주요국 중 올해 말까지 미국보다 금리 인하 폭이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거의 없고 비미국의 경기 반등 강도도 제한적"이라고 했다.

또 "1300원대 후반에 갇힌 원·달러는 국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수출 모멘텀이 둔화되는 것을 고려하면 하반기 한국 경제가 더 좋아질 만한 부분이 별로 없다. 하반기 1350-1400원 등락을 예상한다"고 했다.

다만 달러·원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최광혁 LS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상하단 밴드를 1290-1410원으로 제시하며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정부 개입 우려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 탄력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그레벨을 1400원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하반기에도 달러화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외부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상투데이		창간 2014년 3월 31일 등록번호 경북.가00032 http://www.gyeongsangtoday.com	
발행·편집인 이승협		편집국장 박성택	
본사 대표전화 (054)748-0070	사회 2부 <구내>1005	판매·광고 (054)748-0070	
편집부 <구내>1004	문체부 <구내>1007	경영·관리국 <구내>1006	
사회부 <구내>1006	정경부 <구내>1008	F A X (054)748-3363	
구독·광고·계보 ☎054-748-0070		E-mail : gst3000@naver.com	
·경주시양정로 256(동천동) 덕양빌딩 8층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당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진실성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칭찬이 씨앗 되어 마음에 예쁜 꽃을 피웁니다

경상투데이 칭찬 캠페인

대한민국 노후날씨

언제나 항상 맑음



노인장기요양
 당신의 노후행복,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책임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의 곁에 있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